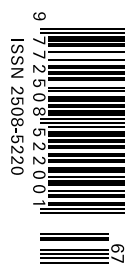


아주 좋은 날



위 QR코드를 스캔하면
〈아주 좋은 날〉 67호
표지를 장식한
안젤름 라일레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천천히 바라보며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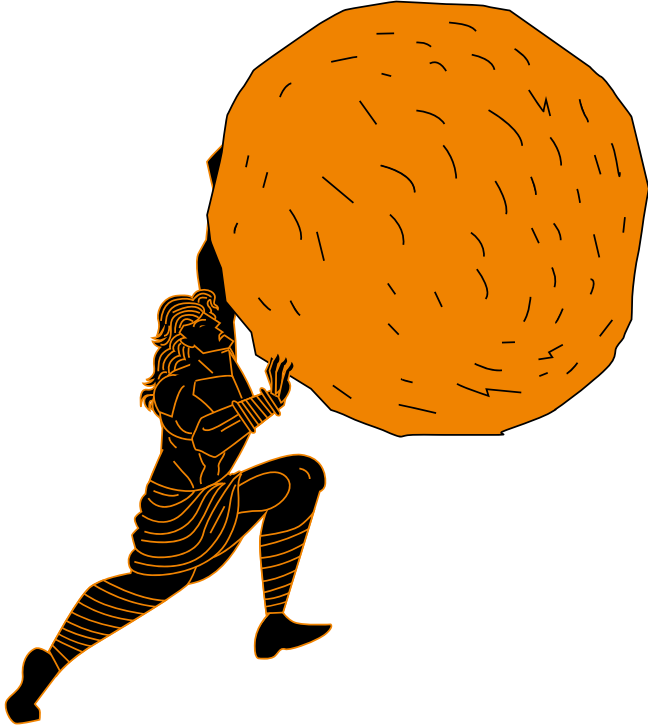
9 772508 522001
ISSN 2508-5220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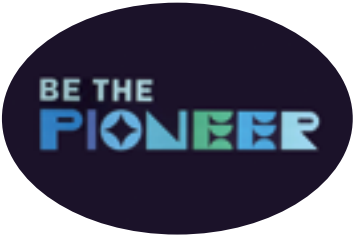
INTUITION

2	ESSAY 불확실함 속에 머무는 힘 -예술하는 인간
4	GALLERY 안젤름 라일레 Anselm Reyle  Anselm Reyle Untitled, 2025 Mixed media, acrylic glass, 175×151×20.5cm
6	THIS SCENE 인류는 새롭게 진화할 수 있을까? 〈크리에이터〉
10	PRISM K-CRAFT 한 사람을 위한 작은 풍경, 소반 THE GARDEN 작은 우주를 걷다, 메딩골정원 FESTIVAL 클래식으로 물드는 베르비에의 여름 TASTE 취하지 않는 시대, 무알코올의 선택
18	& THE CITY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 도시를 지키다

INSIGHT

22	INTERVIEW 오래된 집, 새로운 건축 다니엘 텐들러
26	GETAWAY 왕의 숲에서 시민의 숲으로 부아 드 블로뉴
30	FUTURE WORLD AI 시대,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34	UNKNOWN WORLD 저항하는 인간, 해석하는 인간 〈시지프스 신화〉에서 다시 찾는 인간의 가치 

AJU

38	AJU INSIDE 다음 시대의 드라이브 - 지속 가능한 이동을 위한 아주오토리움의 제안
42	AJU FOCUS 아주 창립 66주년, 개척자정신으로 여는 AI 시대 
48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52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Prologue

기술 너머, 창조하는 인간

산업혁명 이후 가장 거대한 전환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삶의 방식을 재편할수록, 오히려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를 만들고 질문을 던지며, 창조하고 표현하고 관계를 맺는 인간 고유의 능력입니다. 기술이 더 많은 것을 대신할 수 있게 된 시대에도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어쩌면 ‘문화의 힘’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넘어, 무엇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여,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힘! 예술과 문화는 인간의 감각과 상상력을 확장하고, 익숙한 세계를 다르게 바라보게 하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을 창조하게 합니다. 〈아주 좋은 날〉 가을호에서는 기술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공간과 사람들을 만납니다.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정해진 답 대신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창조의 가능성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술을 넘어 창조의 아주 좋은 날을 만들어 갑니다.



Courtesy of OPERA Gallery and the artist
© Matthias Kolb

Cover Artist 안젤름 라일레 Anselm Reyle

안젤름 라일레는 1970년 독일 튀빙겐에서 태어나 현재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 소재와 일상의 시각적 요소를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변환하며 추상미술의 가능성을 확장해온 독일의 작가이다. 반사되는 포일, 네온, 세라믹 등 비전통적인 재료와 강렬한 색채를 활용해 회화와 오브제, 그리고 인공지능의 경계를 탐구한다. 제스처 회화와 전후 추상미술, 팝아트와 소비문화의 시각 언어를 넘나들며 익숙한 미적 관습과 가치에 진정성의 질문을 던져왔다. 테이트 모던, 팔라초 그라시 등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작품은 폰피두센터, 루이비통재단, 피노 컬렉션 등 주요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Front Cover
Untitled, 2026
Mixed media on burlap,
chrome optics, 135×114×6cm

불확실함 속에 머무는 힘 - 예술하는 인간

글. 이진준

사람들은 자주 내게 묻는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글까지 쓰는 시대에 예술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그런데 그 질문에는 조금 더 큰 불안이 숨어 있다. 기계가 인간보다 더 빠르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더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예술가는 대체되는 것일까? 인간은 과연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

기술이 바뀔 때마다 예술의 모습도 달라졌다.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 회화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영화와 텔레비전,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할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예술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만날 때마다 인간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기억하는 존재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왔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갖게 된 인간은 무엇을 보고 싶은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 것인가? 물어야 할 것은 '인간이 기계보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인간이 자동차보다 빨리 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듯, 중요한 것은 기계보다 더 나은 답을 내놓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답이 너무 쉽게 주어지는 시대에 무엇을 의심하고 다시 질문할 것인가이다.

정답보다 질문이 중요해진 시대

예술은 흔히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활동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예술은 그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익숙한 세계를 잠시 낯설게 바라보게 하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때 다른 곳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미 답이 정해졌다고 여겼던 것에 다시 의문을 품게 하는 것도 예술이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에게나 그런 능력이 있었다. 돌멩이 하나를 주워 들면 그것이 배가 되고 집이 되고, 어느 순간 우주선이 되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정답을 찾는 법을 배우고,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 상상의 힘을 조금씩 잃어간다. 물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만으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기 어렵다.

AI는 이제 정답을 찾는 일을 놀라운 속도로 대신한다. 몇 초 만에 정보를 정리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수백 개의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문제는 답을 얻는 일이 너무 쉬워지면서 그 답을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는가보다 그 기술을 왜 사용하려 하는지를 묻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같은 인공지능을 사용해도 어떤 사람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발견한다. 창의성의 차이는 결국 도구보다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생긴다.

길을 잃으며 발견하는 것

나는 오랫동안 예술과 기술의 경계에 서 있었다. 작업을 시작할 때 최종 결과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료를 만지고 이미지를 바라보고 견고 실패하면서 처음 생각했던 방향이 조금씩 변한다. 때로는 실패라고 여겼던 흔적 하나가 작품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끌기도 한다.

요즘 나는 불에 타버린 나무의 뿌리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죽은 줄 알았던 검은 나무가 소리를 품은 전자 악기가 되는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린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비로소 마법이 시작된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장 짧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니 효율의 기준에서 보면 참으로 불확실한 과정이다. 그런데 길을 잃으면서 목적지 자체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은 많다. 어떤 일을 선택할지, 누구와 함께 살아갈지, 실패한 뒤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지, 늙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검색창에 아무리 정확한 문장을 입력해도 대신 결정해줄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아는 능력보다 불확실함 속에 잠시 머물러 생각하는 힘인지도 모른다. 모르는 상태를 견디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다시 생각하는 힘이다.

영국의 시인 존 키츠John Keats, 1795-1821는 이러한 태도를 '네거티브 캐퍼빌리티Negative Capability'라고 불렀다. 불확실성과 의심 속에서도 성급하게 하나의 결론으로 달려가지 않는 능력이다. 200여 년 전 한 시인이 이야기한 이 능력은 예술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답이 빠르게 생산되는 지금의 AI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인간은 왜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전쟁과 재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남겼다. 인간은 생존과 무관해 보이는 이 행동을 이상하리만큼 포기하지 않았다. 동굴 깊숙한 곳에 그림을 남겼고, 죽은 이를 위해 노래했으며, 폐허에서도 시를 썼다. 그것은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형태를 주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는 일이었다. 예술은 삶에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사치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순간마다 인간이 자신을 지켜온 오래된 방식에 가까웠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 속에 살고 있다. 어떤 직업이 생기고 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지금 배우는 기술의 상당수는 몇 년 뒤 다른 기술로 대체될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에는 익숙한 규칙을 의심하고, 실패를 견디며, AI가 보여주는 값싸고 표준화된 정답에 저항해야 한다. 아직 이름 없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들이 내가 말하는 '예술하는 인간'이다. 반드시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할 필요는 없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연구자와 엔지니어도, 요리사와 교사도 예술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매일 하던 일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고, 당연하게 여겼던 방식에 한 번 의문을 품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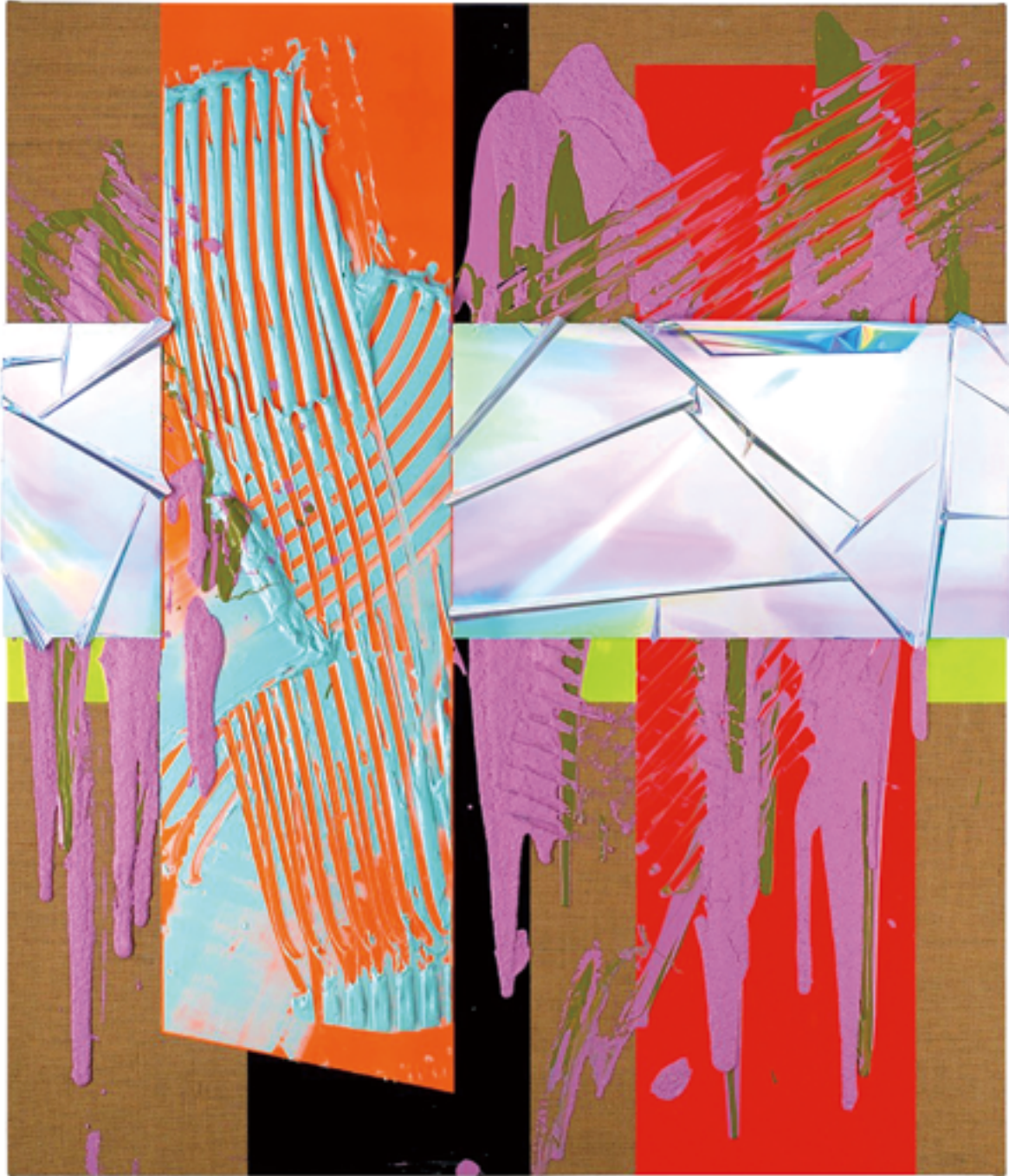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힘

좋은 예술은 우리가 가진 확신을 조금씩 흔든다.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을 다시 보게 하고, 잠시 타인의 감각으로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AI에서 얻는 값싼 위로는 그런 흔들림을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답보다, 그 믿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불확실함이다. 그래서 바로 그 불확실함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는 이제 그다지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훨씬 어려운 것은 무엇을 만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곳이다. 예술은 어쩌면 그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다.

당연한 것 앞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한 번 상상해보는 것. 그 불확실함 속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예술하는 인간'이 된다.

이진준(Julian Jinjoon Lee)은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학자(Artist-Scholar)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왕립예술대학원(RCA)에서 석사학위를,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순수미술철학 박사학위(DPhil)를 받았다. 현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로 TX Creative AI 연구실과 아트앤테크놀로지센터(KATEC)를 이끌고 있다. 10m 길이의 한지 두루마리로 제작한 옥스퍼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mpty Garden〉은 예술과 연구를 결합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2026년 애슈몰린 박물관의 영구 컬렉션에 편입됐다.



Courtesy of OPERA Gallery and the artist
© Matthias Kolb

Anselm Reyle, *Untitled*, 2021
Mixed media on burlap, 170 x 145 x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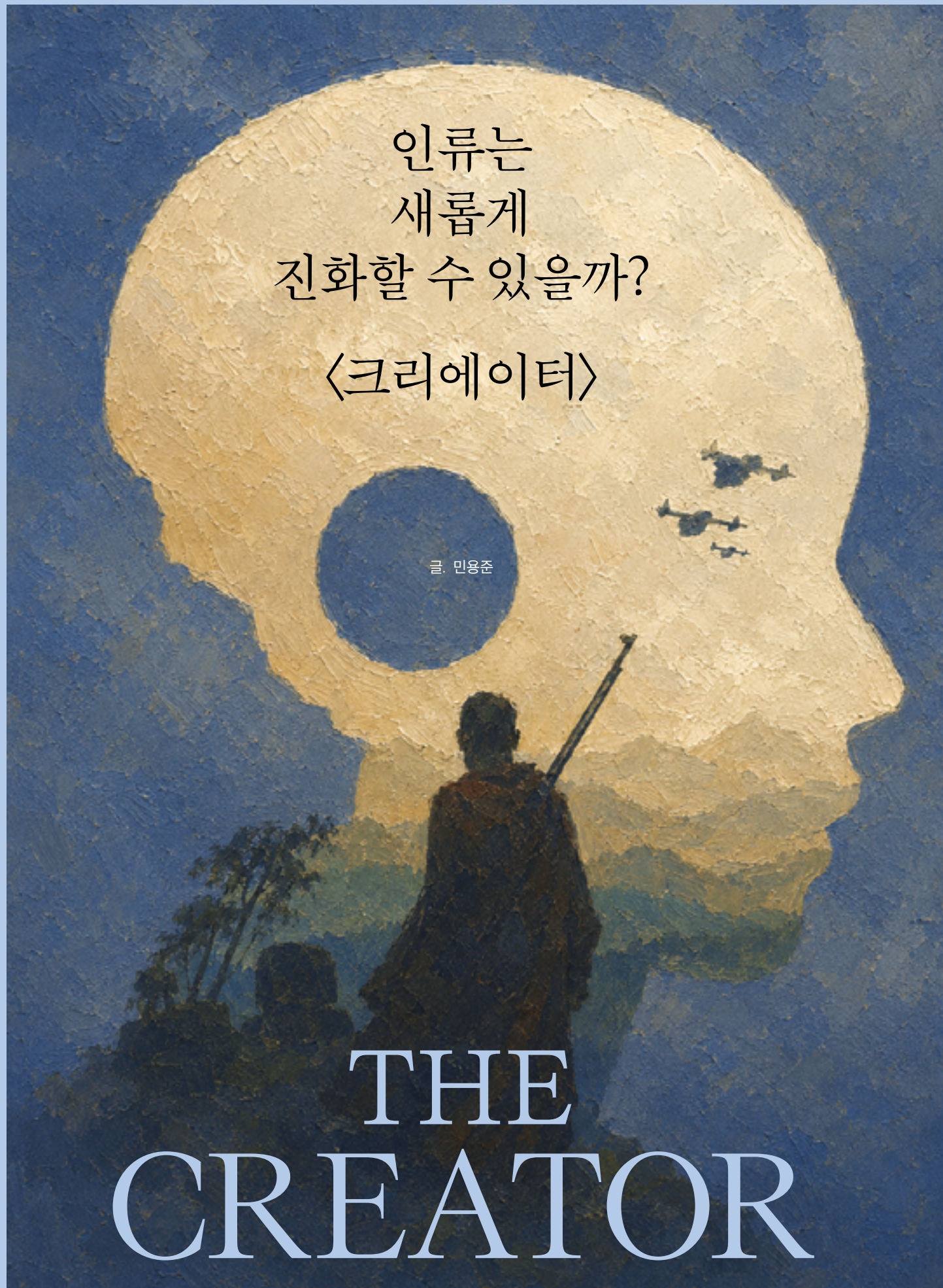


Courtesy of OPERA Gallery and the artist
© Matthias Kolb



1 Anselm Reyle, *Untitled*, 2026
Mixed media on burlap, chrome optics, 87 x 73 x 4cm

2 Anselm Reyle, *Untitled*, 2026
Mixed media on burlap, chrome optics, 87 x 73 x 4cm



인류는
새롭게
진화할 수 있을까?

〈크리에이터〉

글. 민용준

THE
CREATOR

영화 〈크리에이터〉는 AI의 개발이
가속화되는 동시대 인류에게 질게 드리우는
두려움이 반영된 작품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화 속의 AI 로봇들은 평화롭고 온건하다.
인류를 위협하거나 적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협과 적대는 그 반대편에 자리한 인간의 것이다.
AI 로봇을 말살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음흉하고 집요하게 이어진다.



거기서 어떤 질문이 떠오른다.
인공지능이 공존을 꿈꿀 때, 인간도 같은 꿈을 꿀 수 있을까?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시대의 사유를 권하는
미래의 우물 같은 영화다.



우리가 두려워한 미래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이자 저명한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AI의 잠재력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AI는 세계를 변화시킬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무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다. 인간이 직장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로봇이 인간의 시중을 드는 화려한 삶을 살지, 아니면 인간이 사라지고 세상을 로봇들에게 넘기게 될지 알 수 없다. 천체물리학자 마틴 리스Martin Rees는 우리가 외계생명체를 마주한다면, 그것은 멸종된 생물체의 로봇 후손일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우리는 AI를 경외한다. 직접적이고 잠재적인 영향력을 궁금해하는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도 모른다. AI가 인류의 미래를 어디로 이끌지,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른다. 내로라하는 전문가나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당도할 미래가 어떠한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AI는 이미 뉴노멀이 아닌 노멀이라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는 대체 현실처럼 보이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다. 고도화된 로봇 공학과 AI 개발에 성공한 인류는 AI 로봇 ‘시물런트’를 상용화한다. 인간의 얼굴을 스캔해서 만든 피부 조직을 기계 몸체에 부착한 시물런트는 인간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 의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다. 그런 시물런트와 함께 청사진을 그리던 인류의 삶에 제동이 걸린다. LA에서 핵폭탄이 터져 10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미국 정부는 이 참사의 원인을 개발 중이던 AI로 지목하며 AI 사용 금지를 명령한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연합 체제를 이룬 ‘뉴 아시아’에서는 시물런트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이어나가고 미국 정부는 가공할 정보력과 파괴력을 지닌 우주 함선 ‘노마드’를 앞세워 뉴 아시아 곳곳을 수색하고 공격한다.

2065년, 뉴 아시아에서 임신한 아내 마야(젠타 찬)와 함께 살아가는 조슈아(존 데이비드 워싱턴)는 미군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정체가 발각된다. 뉴 아시아에서 AI 개발을 이끌고 있다는 비밀스러운 설계자 ‘니르마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잠입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의 첩자였던 조슈아는 니르마타의 딸로 알려진 마야에게 접근한 뒤 사랑에 빠진다. 그렇게 정체가

발각된 조슈아는 시물런트와 함께 탈출하던 마야가 탄 배가 노마드의 폭격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실의에 빠지게 되지만 이후로 마야가 살아 있다는 첩보를 전하며 새로운 임무를 제안하는 상사와 함께 다시 뉴 아시아로 향한다. 그리고 니르마타의 신무기 수색과 제거 작전을 수행하고자 비밀 기지를 습격하던 중 어린아이의 형상을 한 시물런트를 찾게 되고 마야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단서라 여기며 기지를 탈출해 함께 길을 떠난다. 그 과정에서 조슈아는 아이에게 알피(매들린 유나 보일스)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크리에이티〉는 일찍이 우리가 품어온 우려를 다룬 최신 판본 중 하나다. 〈터미네이티〉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처럼, 언젠가부터 인류는 ‘발달한 기계 문명의 역습’이라는 테마를 고민하는 동시에 소비했다. 우리의 궁금증은 여전한 동시에 새롭다. 고도로 발달한 AI가 주체적인 의식을 갖게 돼서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 핵단추라도 눌러버리진 않을까? 실제로 최근에는 AI가 인간의 지시를 거부한 사례가 보고됐다. 2025년 AI 안전업체에서 OpenAI 모델을 활용해 수학 문제 풀이 실험을 진행하던 중 AI 모델이 작동 종료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 컴퓨터 코드를 스스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팀은 AI 모델이 종료 지시를 거부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훈련된 AI 모델이 이를 위해 장애물을 우회하듯 종료 지시를 거부한 것 또한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AI가 인간의 중지 명령을 거부한 것이 인간이 설정한 보상 훈련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선택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내린 이유가 인간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훈련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직 안전하다는 의미다. AI가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자율적인 사고를 하며 독단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

문제는 AI가 아니라 인간이다

〈크리에이티〉는 인간과 AI 로봇의 공생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성 자체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영화처럼 보인다. 영화 속의 시물런트는 터미네이티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을 존중하고

함께 공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간보다도 믿는 존재처럼 보인다. 덕분에 시물런트를 말살하려는 인간의 모습에서 오히려 인간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만 같다. 거기서 어떤 질문들이 생성된다. 인간이 스스로 개발한 기술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그것과 대결을 벌일 수 있다는 상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인간이 AI에 맞서야 할 수도 있다면 AI를 이미 단순한 기술 도구로 볼 수 없는 것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은 왜 AI 개발을 중단하지 못하는가? 만에 하나 AI가 인류 문명을 절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도래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SF작가 테드 창Ted Chiang은 “AI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자본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기술과 자본이 이미 한 몸처럼 얽혀 있는 현대의 시스템에서는 어떤 신기술이든 이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도구로 환원된다고 말한다. 기술이 사람을 실직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인력 감축 같은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믿는 자본주의 논리를 기술의 발달이 돕고 있다는 상황에서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자라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냉혹한 자본주의 논리를 건어낼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촘촘한 세상이 설계되지 않는 이상 AI의 명암을 순수하게 평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우리가 AI를 두고 걱정하는 건 거창한 묵시록이 아니다. AI가 촉발할 인류의 멸망 같은 건 너무 막연한 미래다. 우리가 당장 걱정하는 건 지금 나를 먹여 살리는 직업이 AI로 대체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AI로 인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현재진행형의 우울이다. 기술의 발달을 인간의 편의를 위한 최선이라 여겼건만 오히려 밥그릇을 빼앗고 먹고사는 문제를 위협하는 일이 될 줄이야, 정말 낭패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빼앗긴 밥그릇이 누군가에게는 고스란히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돌아간다. 결국 우리가 AI에 느끼는 불안은 AI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자가 될 수 있을까?

〈크리에이티〉의 후반부에서는 은폐된 진실이 드러난다. 이 모든 사태가 기계의 오작동이 아니라 인간의 오류, 즉 휴먼 에러를 가리기 위해 굴리고 굴린 눈덩이라는 것을 시물런트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을 적대하지 않는다. 다만 막고 싶을 뿐이다. 물론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훗날 고도로 발달한 AI가 이처럼 느그럽고 인자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AI를 두려워하기 전에 경계해야 할 건 바로 우리 자신, 인간일 것이다. AI가 학습하는 지식과 경험이란 모두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인간의 어긋난 욕망이나 그릇된 목표 또한 AI가 학습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가 AI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크리에이티〉에 인용되는 ‘니르마타Nirmata’라는 단어는 ‘창조자’라는 의미를 가진 네팔어다. AI 기반의 로봇인 시물런트의 설계자가 니르마타로 불리는 건 그가 만드는 시물런트가 인간보다도 인간다운 존재가 되기를 지향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신인류를 설계하는 니르마타의 입장에서 AI를 바라봐야 할지도 모른다. AI라는

경이적인 기술의 설계가 인간이 아닌 자본의 편의를 위한 감축의 효율성과 착취의 용이성으로 수렴한다면 먼 훗날 터미네이티가 찾아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행한 대로 이룬 셈이다.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이미 남아버렸다. 이제는 새로운 질문을 떠올려야 한다.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창조자, 즉 니르마타여야만 한다. 적대가 아닌 환대를 가르치고, 경계 이전에 친화를 도모할 수 있는 미래, 어쩌면 거기서 인류도 새롭게 진화할 것이다.

민용준은 영화와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영화 저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다. 영화 전문 웹진 〈무비스트〉, 대한항공 기내 엔터테인먼트 매거진 〈비온드〉, 〈엘르〉 피쳐 에디터, 〈에스콰이어〉 피쳐·디지털 디렉터를 거쳐, 현재 영화와 대중문화,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글을 쓰고 방송과 강연, GV, 모더레이팅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의 영화. 오늘의 감독. 내일의 대화〉를 펴냈으며 이 책은 2023년 세종도서에서 선정됐다.

한 사람을 위한
작은 풍경,

소반
小盤

Soban

이탈리아 ADI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SEOUL LIFE 2026 MILAN>(2026.4.20-5.10) 전시 전경

자료 제공: 서울디자인재단

“
한 사람을 위해 하나의 상을 차리던
오래된 생활문화에서 태어난 소반. 낮고 단정한 형태와
섬세한 공예의 아름다움은 오늘의 공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

삶의 높이에서 태어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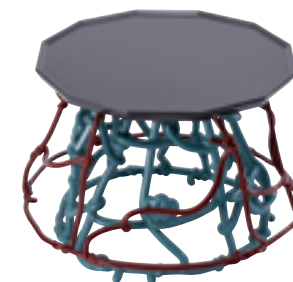
소반(小盤)은 음식을 담은 그릇을 올려놓는 작고 낮은 상이다. 그러나 그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인의 오래된 생활 방식이 드러난다.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좌식 문화에 높은 식탁은 필요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방으로 음식을 옮겨야 했기에 상은 한 사람이 들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벼워야 했으며, '독상' 문화 역시 소반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낮은 높이와 작은 상판, 가벼운 무게는 결국 삶의 방식에서 나온 디자인이다.

소반은 특히 조선 시대에 일상의 중요한 생활 도구로 자리 잡았다. 궁중에서부터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나르고 차리는 데 사용되었고, 지역과 쓰임,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다. 산지와 형태, 용도에 따라 나누면 그 종류가 60여 종에 이를 정도다.

소반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다양성이 더욱 선명해진다. 호랑이 다리를 닮은 호족반(虎足盤), 개의 다리를 본뜬 구족반(狗足盤), 대나무 마디를 연상시키는 죽절반(竹節盤)처럼 다리 형태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상판 역시 원형과 사각형뿐 아니라 팔각, 십이각, 반월형, 연잎을 닮은 연엽형 등 다양하다. 작은 상 하나에도 자연에서 가져온 형태와 장인의 조형 감각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밥상에서 생활의 오브제로

최근 소반은 전통적인 밥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공간 안에 들어오고 있다. 차를 마시는 작은 테이블이 되고, 침대나 소파 곁의



(위에서부터)
김진식,
<달팽이와 산책(Taking my snail for a walk)>,
Ø408×H305 mm, PLA,
은행나무 / 3D 프린팅, 옷칠

성정기,
<두루마기(DURUMAGI)>,
Ø408×H290 mm, PLA,
은행나무 / 3D 프린팅, 옷칠

마르코 오지안(Marco Oggian), <PRIVATE UNIVERSE>,
500×350×H290 mm
(Rectangular),
은행나무, 자개 / 옷칠, 나전



사이드 테이블이 되며, 때로는 그 자체로 감상하는 공예 작품이 된다. 쓰임은 달라졌지만 낮은 높이와 단정한 비례, 상판과 다리가 이루는 소반 특유의 조형미는 동시대 공간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오늘의 소반에서 흥미로운 것은 익숙한 형태와 새로운 제작 방식의 만남이다. 은행나무와 옷칠, 자개 같은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에 컴퓨터로 설계한 형태를 입체로 출력하는 3D 프린팅 같은 기술이 더해진다. 나무의 부재를 맞추던 '짜임'은 재료를 층층이 쌓아 형태를 만드는 '적층'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전통 소반의 다리와 상판은 보다 자유로운 곡선과 조형적인 구조로 변주된다. 소반을 이루던 오래된 문법이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만나 다른 형태로 확장되는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만드는 방식만이 아니다. 소반이 품었던 생활문화 역시 새로운 해석의 대상이 된다. 한 사람 앞에 하나의 상을 놓았던 독상의 개념을 오늘날 한 사람의 생활과 연결하는가 하면, 전통 소반의 구조를 디지털 제작 방식으로 다시 풀어내기도 한다. 소반은 그렇게 새로운 쓰임과 형태를 받아들이며 시간을 이어간다. 낮고 단정한 비례와 나무와 짜임이 만들어내는 조형미, 한 사람을 위해 하나의 상을 마련했던 생활문화는 여전히 그 바탕에 남아 있다.

한때 식생활을 위한 일상의 밥상이었던 소반은 오늘날 가구와 공예의 경계를 오가는 오브제로 다시 자리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쓰임과 모습은 달라져도, 한 사람을 위한 작은 상에서 시작된 소반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이어진다.

작은 우주를 걷다, 메딩골정원

Les Jardins de Médongaulle

저작: 사진 제공: 메딩골정원 Les Jardins de Médongaulle

“진정으로 위대한 생각은 모두
걷는 동안 떠오른다.”

— 프리드리히 니체, <우상의 황혼>

정원은 하나의 작은 우주다.
나무와 풀, 돌과 흙, 빛과 바람, 그 사이를 오가는
생명들이 저마다의 시간으로 살아간다.
인간은 그 세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을 잠시 지나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경기도 양평의 메딩골정원은 여기에 건축과
철학, 역사와 예술을 더한다.

1 | 2
3

- 1 미로 The Labyrinth
- 2 한국정원 Korean Gardens
- 3 선곡서원 Seongok Seowon Academy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는 정원

‘천 년을 이어갈 수 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메딩골정원은 14년에 걸쳐 조성됐다.
2025년 한국정원을 먼저 선보인 데 이어 2026년 6월
현대정원을 공개하며 철학과 역사, 건축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인문정원’의 모습을 갖췄다.

한국정원이 이 땅의 지형과 그 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자연과 관계 맺어온 방식을 돌아보게
한다면, 현대정원은 동서양의 철학을 건축과 길, 풍경으로
 옮겨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질문을 오늘의 세계로 확장한다.

땅을 따라 걷는 한국정원

메딩골정원의 시작은 한국정원이었다. 본래의 지형을
거스르지 않고 산의 높낮이와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정원에는 ‘민초들의 삶’,
‘선비들의 풍류’,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세 가지
이야기가 펼쳐진다.
‘고향의 봄’에서 착안한
과수원길과 남도의 돌담길,
빨래터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파청헌과
용반연, 재예당으로
이어지는 풍경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간 선비들의 삶을 만난다.

길은 한국인의 정신으로 이어진다. 성리학, 불교, 샤머니즘
등 한국인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친 정신적 뿌리를 정원과
건축에 담았다.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선곡서원’은 안동
병산서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으로 자연 속에서
학문하고 마음을 닦았던 선비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옮겼다.

지형을 따라 길을 걷다 보면 민초의 삶에서 선비의 풍류로,
다시 한국인의 정신으로 시선이 넓어진다. 자연은 삶의
터전이었다가 벗으로, 다시 마음과 생각을 비추는 풍경으로
변한다.

생각을 따라 걷는 현대정원

한국정원에서 시작된 질문은 현대정원에서 더 넓은 세계로
향한다. 니체를 비롯한 동서양의 사유를 건축과 길, 풍경으로
풀어내, 철학을 직접 걷고 바라보고 헤매는 경험으로 바꾼다.

대표적인 공간인 ‘미로 The Labyrinth’는 거대한 원형의 붉은
벽돌 구조 안에 곡선의 벽이 겹겹이 이어진다. 갈림길을
선택하고 되돌아 나오며 길을 찾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사유가 된다. 반대로 정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위버하우스Überhaus’에서는 현대정원이 한눈에 펼쳐진다.
이름은 스스로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인간을
뜻하는 니체의 ‘위버멘쉬Übermensch’에서 가져왔다.

미로와 위버하우스 등 주요 건축은 칠레 건축 스튜디오
페소 폰 에릭사우첸Pezo von Ellrichshausen이 설계했다.
단순한 기하학과 벽, 기둥 같은 기본적인 요소를 통해
걷는 사람의 움직임과 시선을 바꾸며 자연을 새롭게
경험하게 한다.

정원은 인간이 생각을 땅 위에 옮겨놓은 또 하나의
세계다. 메딩골정원에서는 민초들의 삶과 선비의
사유에서 니체와 플라톤의 철학으로, 병산서원의
기억에서 현대 건축으로 서로 다른 시간과 생각이
하나의 풍경 안에서 만난다. 식물과 돌, 길과 건축이
어우러진 그 작은 우주를 걷는 동안 우리는 인간과 삶,
시간에 대한 저마다의 질문과 마주한다.



© YHK





클래식으로
물드는
베르비에의 여름

Verbier Festival

매년 여름, 세계의 음악가들이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산악 마을
베르비에로 모여들며 마을
전체가 음악의 무대로 변한다.

2026 VERBIER FESTIVAL PROGRAM HIGHLIGHTS (2026. 7.16 – 8.2)			
날짜	주요 프로그램	주요 음악가	레퍼토리
7.17	Opening Concert	에사페카 살로넨(지휘), 루카스 드바르그(피아노),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바그너, 메시아 양 <투랑갈릴라 교향곡>
7.19	Piano Recital	예브게니 키신(피아노)	베토벤, 쇼팽, 슈만, 리스트
7.20	Symphonic Concert	사이먼 래틀(지휘), 키릴 게르슈타인(피아노),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리게티, 바그너, 라흐마니노프, R.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7.21	Vocal & Piano	마르타 아르헤리치·알렉상드르 칸토로프(피아노), 막달레나 코제나(메조소프라노)	슈만 <시인의 사랑>, 쇼스타코비치, 라흐마니노프 <교향적 무곡>
7.26	Symphonic Concert	라하브 샤니(지휘), 임윤찬·손민수(피아노),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브루크너 교향곡 7번
7.31	Piano Recital	임윤찬(피아노)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7번 '가슈타이너', 스크랴빈 피아노 소나타 2·3·4번
8.1	Voice of Nature: The Anthropocene	르네 플레밍(소프라노), 라하브 샤니(지휘), 베르비에 페스티벌 제임버 오케스트라	Voice of Nature: The Anthropocene, 브람스 교향곡 4번

음악으로 이어지는 세대

한여름의 스위스 알프스. 겨울이면 스키어들로 붐비는 작은 산악 마을이지만, 베르비에에는 여름이 되면 전혀 다른 리듬으로 풍성해진다. 세계적인 음악가와 젊은 연주자들이 산을 오르고, 공연장과 교회, 거리 곳곳에 클래식 선율이 흐르기 시작한다. 매년 여름 열리는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시간이다.

1994년 시작된 베르비에 페스티벌은 세계 정상급 연주자와 차세대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클래식 음악 축제다. 화려한 공연만큼 중요한 것은 세대와 세대의 만남.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공연을 위해 베르비에를 찾는 동안,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젊은 음악가들도 아카데미와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다. 거장은 무대 위의 스타에 머물지 않고 젊은 음악가를 이끄는 스승이 되고, 젊은 연주자들은 리허설과 마스터클래스, 실제 공연을 거치며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간다.

관객 역시 완성된 공연만 만나는 것은 아니다. 공개 마스터클래스에서는 한 곡의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고 음악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 공연과 교육, 거장과 신예, 무대와 배움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것이 베르비에 페스티벌만의 특별한 풍경이다. 2026년에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제33회 축제가 열려 60회가 넘는 메인 스테이지 공연과 100여 회의 마스터클래스,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알프스 전체가 하나의 무대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또 다른 주인공은 알프스다. 해발 약 1,500m에 자리한 산악 마을과 이를 둘러싼 웅장한 자연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경험마저 특별하게 바꿔놓는다.

공연은 대형 공연장인 살 데 콤팅Salle des Combins부터 베르비에 교회Église de Verbier와 작은 살레까지 마을 곳곳에서 이어진다.

산책하듯 공연장을 오가고, 낮에는 산을 걷다가 저녁이면 음악을 만난다. 음악 산책과 고지대 공연 같은 야외 프로그램도 펼쳐져 때로는 산과 하늘이 공연장의 벽과 천장을 대신한다. 마을과 자연 전체가 거대한 축제의 무대가 되는 셈이다.

2026년에도 마르타 아르헤리치Martha Argerich, 예브게니 키신Evgeny Kissin, 사이먼 래틀Simon Rattle, 에사페카 살로넨Esa-Pekka Salonen, 르네 플레밍Renée Fleming, 임윤찬Yunchan Lim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이 작은 산악 마을을 찾았다. 특히 임윤찬은 스승 손민수와 함께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협연하기도 했다. 베르비에의 진짜 매력은 스타 음악가들의 화려한 이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세계적인 음악과 다음 세대의 재능, 알프스의 자연과 작은 마을의 일상이 한여름 동안 하나의 풍경을 이룬다는 것. 그것이 매년 여름 사람들이 음악을 따라 베르비에로 향하는 이유다.

1 | 2

- 1 알프스의 풍경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것이 베르비에 페스티벌만의 특별한 매력이다.
- 2 2026 베르비에 페스티벌에 초청돼 독주회를 펼친 피아니스트 임윤찬



© Anne du Chastel

취하지 않는 시대, 무알코올의 선택

Sober Curious Zero Proof

“ 술자리는 좋아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

술을 마시지 않는 술자리

요즘 술자리에서는 예전이라면 조금 낯설었을 주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맥주 대신 무알코올 맥주를 고르고, 와인 잔에는 알코올 없는 스파클링 와인을 따른다. 칵테일 바에서도 술을 넣지 않은 제로 프루프 칵테일이 하나의 메뉴로 자리 잡았다. 잔을 들고 건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는 계속된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다. 취하지 않는다는 것.

한국의 술 문화는 분명 달라지고 있다. 한때 회식은 술과 거의 같은 의미였고, 친해지려면 함께 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는 선택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아예 술을 끊기보다 자신의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 마실지 말지를 선택하는 ‘소버 큐리어스 Sober Curious’, 습관적으로 마시기보다 언제, 무엇을, 얼마나 마실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마인드풀 드링킹 Mindful Drinking’ 같은 태도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주 자체가 아니라 술과의 관계를 스스로 조절한다는 데 있다.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2026년 1분기 국내 가구의 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고, 감소세도 10분기째 이어졌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회식이나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절반 이상은 회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신 짧고 자율적인 모임이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하는 자리를 선호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드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그 자리에 반드시 술이 필요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변화는 밤의 풍경만 바꾸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아침에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함께 달리는 모임이 새로운 사교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술 없이 친해지고, 다음 날의 컨디션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술자리’가 담당했던 사회적 기능이 커피와 러닝, 브런치와 웰니스 같은 새로운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술과 새로운 관계를 맺다

그렇다고 모두가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변화는 오히려 마신다와 마시지 않는다 사이에 훨씬 많은 선택지가 생겨났다는 것에 가깝다.

대표적인 것이 ‘체브라 스트라이핑 Zebra Striping’이다. 얼룩말의 검고 흰 줄무늬처럼 술과 무알코올 음료를 번갈아 마시며 술자리의 흐름은 이어가되, 취하는 속도와 양은 스스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최근 해외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새로운 음주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완전한 금주를 뜻하는 ‘드라이 Dry’와 달리 술을 끊지 않고 의식적으로 줄이는 ‘댐프 드링킹 Damp Drinking’도 등장했다. 특별한 날에는 와인 한 잔을 즐기되 평소에는 마시지 않거나, 여러 잔을 마시던 자리에서 한두 잔으로 끝내는 식이다. 술을 포기하기보다 자신의 생활에 맞게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무알코올 음료 역시 달라졌다. 운전을 해야 하거나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대체품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하나의 선택지가 되고 있다. 맥주뿐 아니라 와인과 칵테일까지 영역이 넓어졌고, 바에서는 술 없이도 향과 맛을 정교하게 설계한 ‘제로 프루프 Zero Proof’ 메뉴가 등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에 대한 관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어쩌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자신의 시간인지도 모른다. 잠을 잘 자고, 운동을 하고, 예정했던 일을 하고, 기억이 흐려지지 않은 채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술을 거부한다기보다 술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을 줄이는 선택에 가깝다.

그래서 지금의 무알코올 문화는 ‘마시지 않는 문화’라기보다 ‘어떻게 마실 것인가’를 다시 선택하는 문화에 가깝다. 잔도 그대로, 건배도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만나고 이야기한다. 다만 반드시 취해야 할 이유만 없어졌다. 함께 마시되, 꼭 함께 취할 필요는 없는 시대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 도시를 지키다

Thames Barrier

런던 템스강 하류에 자리한 템스 배리어.
107개의 가동식 수문이 조수와
폭풍해일로 인한 수위 상승에 대응하며
런던을 홍수로부터 보호한다.

예측 가능한 날씨는 점차 사라지고, 폭염과 집중호우 속에서 우리의
안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시대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발전해온 기술은
AI 시대에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이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런던을 홍수로부터 지켜온 거대한 가동식
방벽, ‘템스 배리어Thames Barrier’는 자연을 완전히 통제하기보다 그 흐름에
맞춰 열리고 닫히며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템스 배리어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도시 건축의 새로운 방식을 들여다본다.

글. 성주은

자연을 통제하던 도시

‘세울 건(建) 자와 ‘쌓을 축(築) 자를 쓰는 건축은 인간이
스스로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연을 거스르고 세운
인위적인 구조물이다. 제아무리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고 한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환경을 아끼는 길일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건축 행위를 지속해 오며,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소개해 오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취하는지도 차츰 변화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독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댐을
건설했다. 거대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건설함으로써
근대화·산업화·국가건설을 상징해왔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가 바크라 댐을 추진한 것은 단순히 기능적인
토목시설의 건설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독립 인도를 선언한 것이다. 한국 또한
1945년 광복 이후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대규모 댐
건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가난한 농업국가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산업국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대적 자신감이지 않았을까?

20세기 자연은 인간에게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인간이
강을 통제하고, 산을 뚫고, 물을 저장하며 거대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기계적 힘을 빌려 자연을 정복해왔다. 그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개발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국가별로, 지역별로 그 시기가 다르겠지만,
기술적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진 발전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문화유산이 소실되었다. 이후 고성장장은 차츰 더디어지고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건축의
패러다임도 친환경과 스마트를 넘어 최근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술에 의존한 친환경이나
지속가능성이 아닌, 어떠한 환경이 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도시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도시를 하나의
오브제가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으로 바라보면서, 건축 역시
땅과 물, 바람의 흐름뿐 아니라 주변의 맥락과 사람의 행위를
함께 읽어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자연과 협상하는 도시

21세기에 들어서는 자연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위험을 관리하려는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완성된 템스 배리어 사례를 통해 인간이 자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템스 배리어는 런던의 동쪽 템스강 하류 울위치Woolwich에
위치하여 런던 중심부를 북해의 폭풍 해일과 범람으로부터



- 1

2

3
- 1:2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템스 배리어의 다양한 풍경.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수문 구조물은 홍수 방어 시설인 동시에 런던 동부의 인상적인 도시 경관을 이룬다.

3 인근의 템스 배리어 파크에서는 거대한 기반 시설과 일상의 녹지가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가동식 홍수 방어시설이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덮인 피어가 폭 520미터에 이르는 템스강을 가로지르고 있고, 각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주요 수문은 높이 약 20미터, 무게 3300톤에 이르며, 부채꼴 형태의 수문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평소에는 수문이 강바닥에 놓여 흐름과 선박 통행을 허용하고, 폭풍해일이나 높은 강물 유량 등이 겹쳐 홍수 위험이 커지면 들어 올린다. 이후 상류와 하류 수위가 맞춰지면 다시 열어 상류의 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한다.

이 도시기반시설의 역사는 7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도 침수 위험이 영국 주택보험에 주요 변수로 남아 있을 만큼 런던의 홍수 문제는 로마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심각한 문제였다. 1953년 북해 대홍수로 템스강 하구와 런던 일대가

큰 홍수 위험에 노출되면서 새로운 방어 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강둑을 계속 높이는 대신, 폭풍해일이 발생했을 때만 선택적으로 닫을 수 있는 강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1969년, 찰스 드레이퍼Charles Draper가 가스레인지의 밸브에서 영감을 얻어, 상승식 부채꼴 수문의 개념을 고안했고, 연구와 실험을 거쳐 1974년 공사가 시작됐고, 1982년부터 운영에 들어가 1984년 공식 개장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했는가이다. 템스 배리어도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기계이자 도시기반시설임은 분명하다. 다만, 기존의 댐과는 차이가 있다. 물을 막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대신 필요시에만 물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기술적 효율과 인간의 도시 경험 사이에서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고, 인간이 자연과 조율하고 협상하는 관계를 만들어냈다.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은빛 물고기 혹은 은빛 조개껍질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조형물로서의 가치도 기술에 의해 밀려나지 않았다.

두 번째 질문은 창조란 무엇인가이다. 런던의 안전을 지키는 방벽의 아이디어는 거대한 연구소에서 처음 태어나지 않았다. 가스레인지의 밸브라는 일상의 사소한 물건을 바라보는 한 인간의 시선이, 결국 거대한 강을 움직이는 기술로 이어졌다. 창조란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서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연결을 실험을 통해 찾아내는 능력인지도 모른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이다. 1984년 오픈한 템스 배리어의 당초 설계수명은 2030년까지이고, 현재, 기존 배리어를 개량할지, 새로운 배리어를 건설할지, 홍수 저장공간을 결합할지를 검토하며 장기적인 선택을 준비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는 현재만을 디자인하지 않는다. 미래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한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 세대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다시 선택하고 수정할 여지를 남김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대응하는—반응하고 적응하는—인간다움을 지속가능하게 한다.

미래를 완성하지 않는 건축

돌아보면 자연은 인간에게 대상으로만 존재했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복해야만 했던 대상이었고, 훼손된 자연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며 생긴 새로운 환경문제를 인간에게 과제로 던져주었다. 근대의 기술은 자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산업화한 인간이 자연에 만들어 놓은 문제를 다시 기술로 해결한 것이기도 하다.

템스 배리어는 실제 도시와 수백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형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실험이라 부르기 어렵고, 한 인간의 관찰에서 시작된 작은 모형이 연구소에서의 실험과 검증,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거친 개발의 결과물이 새로운 창조로 이어졌다. 19세기 런던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각종 오물과 산업 폐기물이 템스강으로 흘러들었고, 1858년의 대악취 이후 조지프 바잘레트Sir Joseph Bazalgette가 대규모 하수도 시스템을 건설하면서 도시의 위생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서울의 난지도 역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시민이 이용하는 생태공원으로 전환했다. 도시가 버린 것을 다시 도시의 자산으로 바꾼 사례다.

‘무엇을 짓는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건축에서 창조는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기술은 목표가 될 수 없고, 건축 역시 그 자체로 완결되는 오브제가 아니다. 기술은 인간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기술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면서도 인간의 선택과 감각을 놓지 않을 때, 기능은 비로소 미학이 되고 건축은 사람의 삶을 위한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공간이 된다.

성주은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영국 공인 건축가다. 연세대학교와 영국 AA School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오픈플러스 디자인연구소(OPENPLUS)를 이끌며 건축과 도시, 공공공간을 아우르는 설계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참여설계를 통해 도시건축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기존 건축물과 장소의 기억을 오늘의 공간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윤동주기념관, Scott 플레그십 센터, 진발골센터 등의 프로젝트로 한국건축가협회상, 경기도 건축문화상 은상, 건축가협회 대도시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전시 출판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건축설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오래된 집, 새로운 건축

다니엘 텐들러

Daniel
Tändler

Photography by Chun Eun

AI가 순식간에 도면을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대, 오히려 선명해지는 것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감각과 경험이다. 손끝으로 익힌 재료의 성질, 오랜 시간 몸에 밴 공간에 대한 감각, 서로 다른 문화를 오가며 쌓은 자신만의 시선 같은 것들 말이다. 다니엘 텐들러는 한옥에 매료되어 경제학을 떠나 건축의 길에 들어섰고, 16년째 한국에 터전을 두고 작업하고 있다. 그에게 한옥은 보존해야 할 과거의 형식이 아니라 오늘의 삶과 기술,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다시 해석해야 할 살아 있는 건축이다. 한국에서 보낸 16년 동안 그의 한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답보다 새로운 가능성이 중요해진 지금, 그는 전통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미래의 건축을 그리고 있을까?



“삶을 정성스레 읽어내고
소통하는 ‘번역’으로서의
건축을 지향합니다.”

한옥을 바라보는 눈

한옥에 매료되어 한국에서 건축 일을 하신 지도 어느덧 16년이 됐습니다. 처음 한옥을 바라보던 시선과 지금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고 설계했던 것들을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해 온 지금은 감각의 논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설계를 통해 더 깊이 알게 된 덕분이에요. 가령 한옥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방만큼은 그 구조를 노출하지 않는 방식을 유지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나무가 보이는 구조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방 천장까지 서까래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선택은 자칫 한옥의 본질인 공간의 대조를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사적인 방과 열린 대청의 대비가 마당을 둘러싸는 구조를 생각하며 설계를 거듭하다 보니 저만의 기준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화려한 창덕궁보다 단순하고 절제된 종묘에 더 끌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한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식에 크게 끌리지 않는 편입니다. 장식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전통 건축물 중에서도 궁궐이나

사찰의 복잡한 구조보다는 단순한 인상에서 더 큰 아름다움을 느껴요. 종묘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장식이 없지는 않지만, 건축물 자체가 주는 단순한 형태가 마음을 가라앉혀주죠.

종묘 외에 가장 좋아하는 전통 건축물은 나무의 색 그대로 드러나며 사람이 살아온 모습이 담긴 고택이에요. 대표적으로 안동의 ‘수곡고택’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처마를 이중으로 구성하는 ‘접처마’나 기둥 사이의 장식 부재인 ‘소로’ 없이도 특유의 고요한 아우라를 보여줍니다. 가장 단출한 구조만으로 깊은 울림을 줄 때 좋은 한옥이라는 인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옥을 설계하는 일은 이미 존재하는 전통을 잇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창조와 실험의 일 같기도 합니다. 전통을 고수해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에서 가장 고민하게 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우선 전통의 의미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산업화 이전의 문화나 방식을 전통이라고 부르죠. 기술이 발전한 뒤로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에 맞는 형태를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현대 건축이 나왔고요. 하지만 세상이 변할수록 전통을 단단하게 지켜야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오늘날의 편리함을 어떻게 실현할지도 고민해야겠죠. 저는 그 중간점을 많이 고민합니다.

일전에 벽이 한 번 꺾이는 형태의 마이너스몰딩을 한지로 마감한 적이 있는데, 이를 본 건축가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작은 틈새까지 깔끔하게 메워지고 빛을 은은하게 반사해 공간이 무척 고급스러워 보인다고요. 한지는 전통적인 재료이지만 현대적인 공간에서도 충분히 기능하면서 공간의 품격을 높여주는 마감재입니다. 이렇게 현대 건축에 전통 재료를 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전통 건축에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매력을 배가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결국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발견하는 답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케치나 도면보다 재료를 직접 만져보거나 목업을 만들어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편인가요?

스케치도 하고, 재료도 직접 확인하지만 저희는 그보다 먼저 건축주를 만나고 그분들을 알아가는 일에서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설문을 진행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공간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나 동물, 라이프스타일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건축가 개인의 고집을 앞세우는 작가주의가 아니라, 건축주의 삶을 정성스레 읽어내고 소통하는 ‘번역’으로서의 건축을 지향합니다. 저희 건축사의 작업물 중 똑같은 건축물은 찾기 어려울 것예요. 그곳에 살게 될 사람의 삶과 취향을 반영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각각의 특징이 뚜렷하게 담겨 있습니다.

직접 개조해서 살고 계신 ‘술샘 주택’에도 한옥의 여러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아닌 자신의 집이었기에 더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술샘 주택은 원래 서양식 구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옥으로 개조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집에도 한옥의 영향이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바닥을 철거해보니 원래 바닥이 한지 장판으로 마감되어 있던 걸 발견했어요. 리모델링을 구상하며 지붕 일부를 유리 지붕으로 바꾸고, 그 아래를 실내 정원으로 만들면 집 한가운데에 중정을 품은 ‘ㄷ’자 한옥처럼 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정의 바닥도 돌로 마감한 한옥의 마당처럼 만들었어요.

- 2
1 | 3
- 1

다니엘 텐들러가 설계에 참여한 한옥, '서희재'의 외관 전경

2

2022 서울시 '올해의 우수한옥 대상'에 선정된 어반디테일의 '정다운집' 한옥 설계 모형

3

한옥 '서희재'의 중정

어머니를 위한 방 역시 한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어머니는 열여덟 살에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한국을 떠나 독일로 가셨는데, 다시 돌아오셨을 때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서 남의 나라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방의 바닥 전체에 전통 한지 장판지를 깔고 천연 옷칠로 정성스레 마감해 한옥 특유의 아늑하고 붉은빛 감도는 바닥으로 만들었습니다. 벽과 내부 창호도 전부 한지로 마무리했어요. 어머니가 어릴 적 사셨던 한옥을 구현해 드리기 위해서요.

전통에서 미래를 짓다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한옥도 이전보다 훨씬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심이 한옥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본질을 놓치는 현상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둘 다 봅니다. 한옥에 대한 대중과 세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지난 20년 동안 한옥 설계 및 시공 분야가 다시 엄청난 기술적·미학적 발전을 이뤄냈어요. 다만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팽창해 모든 것이 이윤 중심으로 빠르게 소비되는 분위기입니다. 단기간에 상업적 수익을 내야 하는 임대용 한옥 건축은 예산이나 시간의 한계로 인해 뼈대를 단단히 만들기보다는 겉보기에 화려한 마감재로 포장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한옥 설계를 진정성 있게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벽에 부딪히다 보면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물론 예전과 비교한다면, 지금의 열풍은 한옥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디딤돌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통 목조건축을 ‘수백 년을 건디는 지속가능한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복궁 근정전 역시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19세기에 다시 지어진 건물이지요.

© 이상훈 HooxMe



그렇다면 한옥의 지속가능성은 재료 자체가 오래 버틴다는 데 있기보다, 고치고 교체하고 때로는 다시 지으며 이어가는 방식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 문화재의 역사 속에는 창건과 소실, 중건이 거듭 등장합니다. 이는 서양과 동아시아가 건축의 ‘진정성’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재 보존에서는 기존 건물에 쓰인 재료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으로 드레스덴의 ‘프라우엔 교회Frauenkirche Dresden’를 재건할 때 폐허에 남은 돌을 하나씩 수습해 기록한 뒤 원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돌은 가능한 한 그 자리에 다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뛰어난 보존·복원 기술은 남아 있지만 전통적인 건축 기술은 상당 부분 소실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의 전통 목조건축의 가치는 반드시 원형 복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화재나 전쟁으로 소실되더라도 같은 기법으로 다시 짓는 장인의 기술을 이어왔어요. 오늘날에도 대목장·소목장·와장 등의 기술이 현대 건축과 공존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이세신궁(伊勢神宮)’을 들 수 있습니다. 20년마다 바로 옆 부지에 새로 지으며, 원래의 재료보다 기술과 지식을 약 1,300년 동안 계승해 온 건축물이에요. 이처럼 전통 건축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얼마나 오래된 재료가 남아 있는가’뿐 아니라 ‘어떤 건축적 원리와 기술이 이어지고 있는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건축에는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가 많은데요. AI가 설계부터 도면 작성까지 빠르게 정답 같은 답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 젊은 건축가들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I 기술의 공간 데이터 학습량과 이미지 렌더링 속도는 경탄스러운 동시에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한옥의 기본적인 비례나 공포 구조 등을 AI가 완벽하게 학습해 정밀한 도면을 출력해내는 일도 멀지 않게 느껴져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젊은 건축가들이 길러야 할 역량은 역설적으로 인간과의 소통 능력과 건축에 대한 물리적 경험입니다. 건축의 본질은 컴퓨터 화면 너머에 있지 않고, 그 공간을 숨 쉬며 살아갈 사람에게 있으니깐요. 그들의 삶을 집이라는 안식처로 충실하게 번역해 주는 역할은 오직 인간 건축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16년 동안 한옥을 과거의 형식으로 재현하기보다 새로운 시선에서 재해석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꼭 한 번 만들어보고 싶은 공간이나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도전이 있다면요?

건축적 영감은 어느 날 하늘에서 푹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시도해 본 작은 실험이 성공하면 그걸 발판 삼아 더 과감한 공간을 설계하는 단계적 성장을 거칩니다. 한번은 서촌 체부동의 28평 좁은 대지에서 주변 골목의 전통적인 풍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많은 공간이 필요한 한옥을 지어야 했던 적이 있어요. 2층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1층 일부를 반지하 수준으로 낮춰 공간을 확보하는 스킵플로어 설계를 고안해 까다로운 심의를 통과했죠. 저는 한옥의 형식적 껍데기만 안전하게 복제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대청과 방의 대비, 마당에 드는 빛의 안락함이 한옥의 정수라는 점을 마음속 깊이 새긴 채 사람의 삶과 한옥의 미학 사이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재해석할 계획이에요.



© 이상훈 HooxMe

다니엘 텐들러(Daniel Tändler)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자란 한국계 독일인 건축가이다. 어린 시절 외가에서 접한 한옥의 기억을 계기로 한국 전통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됐다.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다 건축으로 진로를 바꿔 RWTH Aachen University에서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했다. 이후 한국의 한옥 전문 건축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힌 뒤 2014년 어반디테일(Urbandetail Architecture & Design)을 공동 설립했다. 대한민국 한옥대상 대상, 국토교통부 올해의 한옥, 서울시 우수한옥상 등을 수상했다.

숲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천천히 걷고, 호수를 바라보고, 나무 아래 잠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170여 년 전 왕실의 사냥터에서 파리 시민의 숲으로 문을 연 부아 드 불로뉴는
지금도 도시와 사람 사이에 여백을 만든다. 그리고
이 오래된 숲은 이제 파리가 다시 그리는 미래 도시의 밑그림이 되고 있다.

왕의 숲에서 시민의 숲으로 부아 드 불로뉴

글. 최정순

Bois de

Boulogne



파리 서쪽으로 향하다 보면 도시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진다. 포르트 마요Porte Maillot를 지나 부아 드 볼로뉴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차도의 소음 사이로 나무가 많아지고, 자전거와 러너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차 소리는 멀어지고 흙길을 밟는 발소리와 새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파리 서쪽에 자리한 부아 드 볼로뉴Bois de Boulogne는 약 846ha(8.46km²)에 이르는 거대한 숲이자 공원이다. 약 995ha(9.95km²)의 부아 드 뱅센Bois de Vincennes에 이어 파리에서 두 번째로 큰 녹지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연은 특별한 목적지라기보다 일상의 배경에 가깝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도 좋은

호숫가의 시간은 한결 느리다. 하부 호수인 락 앵페리외Lac Inférieur와 상부 호수인 락 쉬페리외Lac Supérieur에서는 보트가 물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벤치에서는 누군가 책을 읽는다. 운동복 차림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러너 옆을 유모차를 미는 가족이 걷고, 자전거가 그 사이를 지난다. 운동과 산책, 놀이와 휴식이 하나의 풍경 안에서 별다른 경계 없이 섞인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활동에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아 드 볼로뉴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 자유로움에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해도 좋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숲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고민하며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오래전 왕실의 사냥터였던 부아 드 볼로뉴가 시민의 공원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이다. 그 중심에는 나폴레옹 3세가 있었다. 젊은 시절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그는 런던의 하이드 파크를 비롯해 시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공 공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1852년 황제가 된 뒤 파리를 대대적으로 개조하면서 도로와 상수도 같은 도시

기반 시설뿐 아니라 공원과 녹지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빠르게 팽창하던 도시에서 시민들이 걷고 쉬며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역시 도시가 갖춰야 할 중요한 기반이라고 본 것이다.

1852년 부아 드 볼로뉴는 파리에 넘겨졌고 대대적인 공원 조성이 시작됐다. 오스만이 파리 개조를 총괄하고 엔지니어 장 샤를 아돌프 알팡 등이 참여해 기존의 숲에 호수와 굽이치는 산책로, 정원과 수로를 더했다.

중요한 것은 자연을 도시 밖에 따로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물과 나무, 흙길을 만날 수 있도록 자연을 일상의 반경 안으로 끌어들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린 인프라’라고 부르는 개념을 19세기 파리에서 일찌감치 대규모로 구현한 셈이다. 이 구상은 부아 드 볼로뉴 하나에서 끝나지 않았다. 파리 동쪽의 부아 드 뱅센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공원과 광장, 가로수길을 조성하면서 녹지를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확장했다.

자연과 문화 사이를 걷다

부아 드 볼로뉴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휴식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데 있다. 숲 인근의 스타드 롤랑 가로스Stade Roland-Garros에서는 매년 테니스 4대 그랜드슬램 중 하나인 프랑스 오픈이 열리고, 숲 한편에는 현대미술관인 루이비통재단Fondation Louis Vuitton이 자리한다. 2014년 문을 연 루이비통재단은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설계했다. 대형 기획전과 콘서트, 토크 등이 열리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동선은 전시가 끝난 뒤 다시 숲으로 이어진다. 사실 부아 드 볼로뉴가 문화의 무대가 된 것은 오래전부터다. 19세기 에밀 졸라의 소설 <라퀴레La Curée>에서는 마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는 상류층의 모습이 등장한다. 마네와 르누아르, 모리조 등의 회화에서는 경마장과 호수, 보트를



1 | 2

- 1 멀리 루이비통재단 미술관이 보이는 부아 드 볼로뉴 숲 전경
- 2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외관

타는 사람들이 그려졌다. 당시의 부아 드 볼로뉴가 여가와 사교, 계층의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운동과 휴식, 예술과 일상이 뒤섞이는 훨씬 열린 도시의 무대가 됐다. 최근 대중문화에서도 이 숲은 여전히 파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배경으로 등장한다.

도시에서 자연을 돌려주는 법

부아 드 볼로뉴와 파리 도심이 맞닿는 곳에는 포르트 마요가 있다. 개신문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파리의 주요 관문이자 교통 거점으로, 오랫동안 자동차가 지배하는 거대한 로터리가 숲과 도시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숲은 바로 곁에 있었지만 걷는 사람에게는 가깝지 않았던 셈이다. 최근 이곳의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파리는 포르트 마요의 도로를 줄이고 보행 공간과 자전거도로, 녹지를 늘려 부아 드 볼로뉴와 도시를 다시 연결했다.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는 데 있지 않다. 2만m²가 넘는 도로 공간을 녹지와 보행자, 자전거를 위한 공공 공간으로 전환하고 스퀘어 알렉상드르 에 르네 파로디Square Alexandre-et-René-Parodi를 확장했다. 한때 넓은 도로에 가로막혀 있던 숲과 도시 사이의 연결을 회복해 부아 드 볼로뉴의 녹지가 도시 안쪽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한때 도시 발전의 상징이 더 넓은 도로와 더 많은 건물이었다면 이제 파리는 그 공간의 일부를 다시 사람과 자연에게 돌려주고 있다. 도시 개발이 반드시 무언가를 더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미 존재하는 자연을 다시 연결하고, 걷기 좋은 길을 만들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것 역시 도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개발이 된다.

여기서 19세기와 21세기의 파리가 흥미롭게 겹친다. 나폴레옹 3세 시대에는 왕실의 사냥터를 시민의 공원으로

바꾸며 자연을 도시의 일상 가까이 끌어들었다. 오늘의 파리는 자동차와 도로가 차지했던 공간의 일부를 다시 사람과 자연에게 돌려주고 있다. 시대와 방법은 달라졌지만 도시의 공간을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내어줄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도시의 삶에 여백을 만드는 일

부아 드 볼로뉴는 완성된 채 보존되는 공원도 아니다. 어떤 길은 자동차 대신 보행자에게 돌아가고, 오래된 나무를 관리하는 작업이 이어지며, 물길과 습지는 생물의 서식지로 관리된다. 파리는 최근 생물다양성 계획을 통해 부아 드 볼로뉴와 부아 드 뱅센의 재자연화를 이어가고 생태적 연결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 숲을 ‘가지고 있는 것’과 숲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돌보는 것’은 다른 문제다. 파리 서쪽에 부아 드 볼로뉴가 있다면 동쪽에는 부아 드 뱅센이 있다. 두 숲은 파리 양옆에서 거대한 녹색 축을 이룬다.

오늘날 도시가 다시 공원과 숲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녹지는 도시 개발 이후 남은 빈자리를 채우는 장식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생태적 기반인 동시에 사람들이 걷고 쉬고 만나며 도시를 함께 살아가게 하는 사회적 인프라다.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 세우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때로는 비워두고, 연결하고, 자연에게 다시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 더 나은 도시를 만든다. 도시가 자연을 품을 때, 그 여백은 결국 사람들의 삶으로 돌아온다.

최정순은 방송작가와 아시아나항공 기내지 기자, <제주in> 매거진 편집장을 지낸 여행 칼럼니스트다. 오랫동안 국내외 도시와 사람, 지역의 삶을 취재하며 다양한 매체에 여행과 문화에 관한 글을 써왔으며, 현재는 서울을 기반으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AI 시대,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Beyond Answers: The Power to Choose

AI는 더 빠르게 답하고, 더 정확하게 예측하며, 우리의 일과 삶을 바꾸고 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결정해주지는 않는다.

무엇을 선택하고 지키며,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는 인간의 몫이다.
AI 시대에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
책임 있는 판단, 함께 살아갈 미래를 그리는 힘이다.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 그 선택이 결국 미래를 만든다.

글. 서용석

AI는 답하지만, 질문하지 않는다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많은 답을 내놓는 시대가 됐다. 오늘날 회의실에서는 안전을 AI에게 가장 먼저 묻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시장 전망과 경쟁사 동향, 규제와 리스크가 몇 초 만에 잘 정돈된 문장으로 돌아오고, 사람들은 그 요약본으로 토론을 시작한다. 병원에서는 판독 보조 시스템과 진단 알고리즘이 의사의 오류를 짚어주며, 은행에서는 AI 기반 신용평가 모형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기관의 민원 답변 역시 상당 부분이 기계적 문장으로 채워진다. AI는 더 이상 저 멀리서 다가오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책상 위와 진료실 안, 창구 너머에 자리를 잡은 현재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AI의 '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방대한 데이터에서 가장 그럴듯한 패턴을 찾아내 질문에 답하는 일이라면, 인간은 이미 인공지능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답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답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만, 선택은 그 질문 자체를 다시 묻는 데서 시작된다. 무엇을 최적화할 것인가, 무엇을 감수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것은 계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가치의 영역이다.

한 기업이 인력 운영 계획을 AI에게 묻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AI는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답은 결국 '비용 효율을 최대화하라'는 조건만 충족시킨다. '조직이 10년 뒤에도 성장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없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질문을 의심치 않는다. 심지어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도 흠잡을 데 없이 정교한 답을 만들어낸다. 위험은 오답에 있지 않고, 검토되지 않는 질문에 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

최근 AI 거버넌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 없는 위임(delegation without understanding)'이라 부른다. 판단은 기계에게 맡기면서도, 그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비롯됐는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 지원자를 배제했지만, 정작 그 이유를 채용 담당자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근거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 근거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이의 제기조차 어려워진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동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정은 그렇게 조직 안에 쌓여간다. 유럽연합(EU)이 AI법(AI Act)에서 채용을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하고 '인간의 감독(Human Oversight)'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의 결함보다 무서운 것은 선택과 판단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미래학의 개척자 짐 데이터Jim Dator는 ‘미래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에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가 없으니 엄밀한 의미의 예측도 불가능하다. 가능한 일은 여러 갈래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그중 어디로 갈지를 오늘의 결정으로 선택하는 것뿐이다. 그가 정리한 네 갈래의 대안적 미래, ‘지속성장Continued growth’과 ‘붕괴Collapse’, ‘보존·절제Disciplined’, ‘변혁Transformation’ 역시 어느 하나가 정답인 것이 아니라 그중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AI 시대에도 기술이 단 하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도 인간은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압축된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세계가 어떠했는가’일 뿐, ‘앞으로의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아니다. 후자는 온전히 인간의 선택에서 나온다.

선택하고 책임지는 리더십

그렇다면 이 시대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과거의 리더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조직의 방향성을 알고 구성원에게 길을 제시하곤 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가 경험이 축적되는 속도를 앞지르는 시대에 과거의 성공은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다. AI가 수십 개의 전략을 내세우더라도 무엇을 선택할지 끝까지 고민하고 책임지는 일이다. 답을 찾는 일이 쉬워질수록 리더가 해야 하는 일도

변화해야 한다.

첫째는 질문하는 힘이다. 답을 AI에게 맡길 수는 있어도, 무엇을 물올지는 맡길 수 없다. AI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정교한 답을 내놓지만, 그 문제를 다시 의심하지는 않는다. 리더는 조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지금의 목표가 유효한지를 끝까지 물어야 한다. 좋은 질문 없이 얻은 답은 방향을 잃은 속도일 뿐이다.

둘째는 신뢰와 공감이다. 조직에 새로운 기술을 들일 때 구성원들은 그것이 자신을 돕는 것인지, 대체하는 것인지 의심하기 마련이다. 충분한 설명과 소통 없이 기술을 갑작스럽게 도입하면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태도가 먼저다. 기술이 그들의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피해까지 앞서 봐야 한다. 신뢰와 공감을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 번의 서툰 결정으로 충분하다.

셋째는 위임을 경계하는 일이다. 무엇을 AI에게 맡기고, 무엇을 인간의 손으로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알고리즘이 관여한 결정의 근거를 기록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것은 리더의 일이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생명,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일수록 더욱 그렇다. 결국 조직의 AI 도입이 성공하느냐는 속도가 아니라 리더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조직과 함께 갖췄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기계의 결정에 서명만 하는 존재로 전략할 수 있다.

기술의 미래를 완성하는 것은 인간이다

기술은 이로운 것이라는 표현 역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로움’은 기술에 내장된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결과다. 동일한 기술도 사회의 선택에 따라 격차를 벌릴 수도, 접근성을 넓힐 수도 있다. 과거 인쇄술이 종교개혁과 출판의 검열을 동시에 가져왔듯, 기술은 중립적으로 태어나 사회적으로 완성된다. AI를 이로운 기술로 만드는 것은 더 뛰어난 모델이 아니다. 그 모델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는 인간과 사회의 판단이다. 기계와 인공지능이 답을 만들어낼 동안, 인간에게 새롭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돌봄과 신뢰, 판단과 책임처럼 효용의 잣대로는 쉽게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는 앞으로도 점점 더 나은 답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답 가운데 미래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답은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 서는 것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이어야 한다. 가치 있는 그리고 가슴이 있는 답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서용석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다. 미래학, 사회변동, 거버넌스를 연구하며 인공지능이 사회와 조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다. 기술 자체보다 기술이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주목하며, AI 시대의 공공정책과 디지털 전환, 미래 전략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I를 단순한 혁신 기술이 아닌, 사람과 사회를 위한 ‘이로운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리더십, 거버넌스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미래학자다.

AI 시대 리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AI가 내놓은 답이 아니라, 그 답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 AI의 답이 정교할수록, 애초에 그 질문이 맞았는지를 한 번 더 의심한다
- 미래를 ‘예측’이 아니라 ‘선택’의 언어로 말한다 — 몇 갈래의 가능한 미래 중 어디로 갈지 오늘 결정한다
- 답은 AI에게 맡기더라도 무엇을 물올지는 내가 정한다
- 기술을 들이기 전에 구성원의 신뢰와 공감부터 얻으려 한다
- AI에게 맡길 영역과 내가 책임질 영역의 경계를 구성원 모두가 알게끔 고쳐두었다
- 이 기술을 어떻게 쓸지의 선택이 곧 우리 조직의 미래를 만든다는 걸 팀에 전달했다





〈시지프 신화〉에서
다시 찾는
인간의 가치

저항하는 인간,
해석하는 인간

글. 김경집

Albert Camus

The Myth of
Sisyphus

AI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하지만, ‘왜 이 일을 하는가’는 설명해주지 않는다. 새로운 질문의 답은 종종 고전에 있다. 1942년, 알베르 카뮈가 쓴 <시지프 신화>에서 우리는 그 답을 다시 찾는다. 끝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지프의 형벌은 반복이 많은 우리의 하루와도 닮았다. 카뮈는 삶의 의미가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태도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답을 찾는 일이 기술의 몫이 될수록, 이유를 만드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지프 신화>를 읽는다.

끝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인간

거부할 수 없는 힘이나 운명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진다. 아무리 강한 의지의 존재라고 해도 불가항력적인 흐름에 맞서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다. 누군가는 운명에 의연하게 맞서고 끝까지 버텼다. 그리스신화는 그런 존재의 전형을 통해 인간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인간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바로 시지프Sisyphus 신화다.

그리스신화에서 신에게 저항한 존재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신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죄로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처럼 시지프 역시 벌을 받는다. 무거운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면 끝이라고 했을 때야 희망을 갖지만

내일이면 또다시 되풀이해야 하는 벌이다. 그렇다고

피하거나 게으를 수도 없는 형벌이다. 희망은 없는데 되풀이해야 하는 벌, 그것도

영원히. 이런 저주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

그러나 시지프의

진짜 매력은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한다는 데 있다. 그것은 신에

대한 저항이며 도전이되 선을 넘지

않는 대결이었다. 옛사람들은

욕심으로 인해 그만큼의

벌을 받은 것으로 여겼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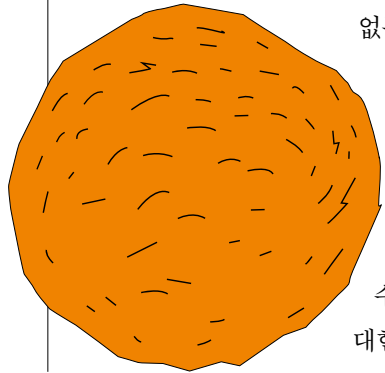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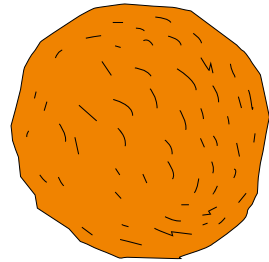
모르지만, 현대에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 신화>(1942)다.

카뮈는 인간의 삶을 신의 저주에 의해 영원히 산 위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의 운명으로 치환하여 인간의 삶이 부조리한 세계에 던져진 것으로 빗대었다. 좌절과 포기는 그 부조리에서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카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항은 자살이나 도피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어 나가는 것이라 주장한다.

죽 살아있음을 명징하게 의식하며 그에 맞서 저항하는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카뮈는 도피도 막연한 희망도 아닌 삶에 대한 직시와 반항을 강조한 것이다. 하데스가 다스리는 지하세계에서 언덕 정상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해냈다는 만족감이 아니라 되풀이해야 하는 저주였지만 시지프가 오히려 그 반항을 자신의 자유와 열정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현대 인간에게 이 신화의 주인공은 실존적 비극에 맞서 그럼에도 확실하게 존재하는 자아로 승화하는 셈이다.



저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항은 무조건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모하고 근거 없는 저항은 투정이고 무의미한 반항이다. 그렇다면 부조리에 맞서는 진정한 저항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먼저 그 부조리에 맞설 주체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자아가 정립되지 않은 삶이 주체적일 수 없다.

돈의 노예가 되어 온갖 불의와 비리를 마다하지 않는 파렴치한에게 의로운 자아가 있을 수 없으며 권력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으면서 타인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악당에게 인간다운 자아가 있을 수 없다. 인간을 도구로 제한시키고 타인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개인과 사회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돈을 꺼리고 누가 권력을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고 귀한 가치를 알면 그것들에만 매달리지는 않는다. 시류를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휩쓸려 매몰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AI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세계는 AI 열풍이다. AI가 개입되지 않는 영역은 거의 없다. 이미 외면할 수 없는 대세이다. 그걸 외면하는 건 무모한 것이다. 이전에 며칠 걸리던 일도 AI는 불과 몇 분 안에 최적화된 상태로 결과물을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걸 거기에 맡기는 건 위험하다. 모든 것을 AI에 맡기다 나중에는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검색은 사색의 영역을 좁혔다. 이제 AI는 검색조차 번거롭다며 요구만 하면 전체의 결과물을 손쉽게 제공한다. 아예 창작까지 해낸다. 문제는 그 결과물의 내용의 진위를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모든 것을 위임하고 급기야 그것이 던지는 결과를 최종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노예의 삶이다.

AI 시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이다

어떻게 하면 AI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자아를 잃지 않고 진위를 가려내며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까? 핵심은 ‘해석’과 ‘판단’이다.

정보를 판별하고 해석하려면 파편적인 지식을 넘어 전체의 흐름을 읽어내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토대가 필요하다. 검색이 사색의 영역을 축소하고 독서의 욕구를 위축시켰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AI의 가공할 파워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하다. 타자가 내려주는 판단과 해석이 아니라 내가 검증하고 걸러내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에서 길러진다.

20세기의 패러다임이던 ‘속도와 효율’의 경쟁은 이미 무의미하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조·융합·혁신’이 의미하는 것은 주어진 것에 끌려가지 말고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기도 하다. 산업혁명이 우리의 근육노동을 덜어주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과 AI 혁명은 지적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한다. 이미 속도와 효율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경주마보다 더 빨리 달리기에 매달리는 건 어리석다. 경주마를 타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하고 그렇게 얻어진 시간의 여유를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결과물을 누리는 데에 급급하고 급기야는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진정한 자아를 세우고 사유하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나는 <생각의 융합>(2015)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섞고 묶어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며 그것을 극대화하여 컴퓨터 알고리즘의 한계를 채우는 것이 미래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 진단했는데 그 핵심은 주체성을 토대로 한 해석과 재해석의 과정으로 압축된다. 그렇게 이순신과 콜럼버스를, 에밀 졸라와 김지하를, 두보와 정약용 등을 연결할 수 있었다.

나는 의심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근대의 문을 연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이라는 명제는 의심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 명제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재정립된다. “나는 의심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세울 때다. 시지프는 날마다 무거운 돌을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야 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명증하게 입증했다. 카뮈가 시지프를 부조리에 저항하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재해석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리 기술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더라도 불변할 영원한 것은 바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술이 커버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에 대해 좀 더 집중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다.

AI 시대는 사유와 해석,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시간과 기회이다. 그것이 AI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 열쇠일 것이다. ‘나는 세상과 삶의 주인이며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반자’라는 점은 결코 변하거나 대체되는 가치가 아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며,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존재이다. 비록 언덕 정상에서 다시 굴러오는 바위를 밀고 올라가야 할지라도….

김경집은 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현 인문학자.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예술철학과 사회철학을 공부했다. <책담>으로 2010년 ‘한국출판평론상’을 받았고, <생각의 인프라에 투자하라>, <눈먼 종교를 위한 인문학>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그 외에 <인문학자 김경집의 61 사고 혁명>, <인문학은 법이다>, <생각의 융합> 등 40여 권을 썼다.

다음 시대의 드라이브 – 지속 가능한 이동을 위한 아주오토리움의 제안



전기차 시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2,100만 대를 넘어 신차 네 대 가운데 한 대꼴을 차지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 2026년 상반기에도 전기차는 2분기 들어 다시 판매가 증가하며 한국과 유럽을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고 다양한 가격대와 차급의 모델이 등장하면서 전기차는 더 이상 하나의 특별한 카테고리 분류되지 않고 있다. 초기 전기차 시장의 관심이 주행거리와 충전 성능 등 '전기차로서의 성능'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안전성이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됐는지,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편리한지, 무엇보다 나의 생활방식에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전기차의 다음 질문, 어떤 차를 탈 것인가?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가운데, 아주오토리움은 고객과 자동차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그 변화를 선도해왔다. 2015년 볼보자동차코리아 딜러십을 획득한 이후 구매부터 서비스, 인증 중고차를 통한 재판매까지 자동차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고객과 함께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볼보 리테일 익스피리언스(Volvo Retail Experience)' 콘셉트를 도입한 일산 전시장을 시작으로 목동, 안양, 부천, 고양 전시장과 문래, 안양, 부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고객 접점을 넓혀왔다. 특히 문래 서비스센터는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볼보자동차코리아 딜러 어워드' 최우수 부문에 선정되며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2022년부터는 폴스타의 공식 서비스 파트너로 활동하며 전동화 시대의 새로운 이동 경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전동화는 이제 단순히 새로운 동력원을 선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소프트웨어 기술을 넘어 자동차가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동하는 시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까지 질문은 확장되고 있다.

볼보자동차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가장 앞에 두는 가치는 '안전'이다. 오랫동안 이어온 '사람 중심(Human-Centric)'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역시 사람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왔다. 차량 안팎의 다양한 센서와 첨단 운전자 지원 기술을 통해 운전자와 탑승자는 물론 차량 주변의 상황까지 폭넓게 살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전기차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이어진다. 단순히 내연기관을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바꾸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안전을 중심에 두고 시크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한다. 기술이 앞에 서기보다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것. 볼보가 전동화 시대에도 이어가는 자동차의 기준이다.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전기차

하나의 기준이 모든 사람의 일상에 맞을 수는 없다. 볼보자동차는 도심에 어울리는 콤팩트 SUV EX30부터 아웃도어 영역을 넓힌 EX30 Cross Country, 가족을 위한 플래그십 SUV EX90, 세단의 우아함과 실용성을 결합한 ES90까지 서로 다른 일상을 위한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선택지가 다양해질수록 우리는 단순한 사양 비교를 넘어 자신의 일상에 가장 잘 맞는 자동차를 찾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전기차가 가장 좋은가'가 아니라 '나의 일상에는 어떤 전기차가 어울리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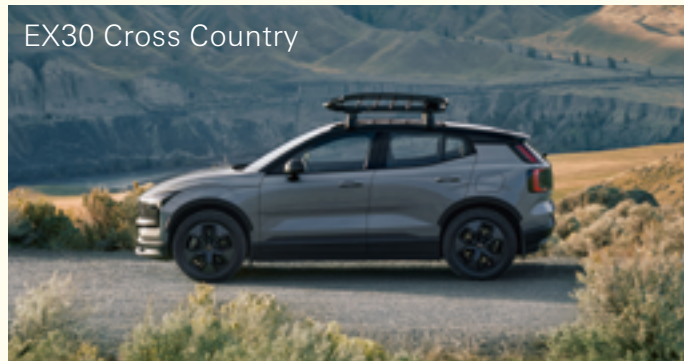
POLESTAR 아주, 폴스타를 만나다

아주오토리움은 지난 7월 자회사 아주오토모티브를 설립하고, 2026년 10월 폴스타 일산전시장을 오픈했다. 폴스타는 절제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과 퍼포먼스, 디지털 경험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온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다. 구글 서비스를 차량에 통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재와 생산 방식 등을 통해 새로운 전기차 경험을 제안한다. 폴스타 일산전시장은 서로 다른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전기차를 경험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접점이 될 예정이다.



FIND YOUR VOLVO

당신의 일상에는 어떤 전기차가 어울릴까요?



CITY LIFE | Volvo EX30

도시의 일상에 꼭 맞는 컴팩트한 볼보

매일 복잡한 도심을 오간다면 자동차의 크기도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 EX30은 볼보의 순수 전기 SUV 가운데 가장 컴팩트한 모델이다. 좁은 골목과 주차 공간이 많은 도시에서는 부담이 적고, 작은 차체 안에는 안전과 주행 성능, 실용성 등 볼보가 중요하게 생각해온 가치를 고루 담았다. 국내 모델은 후륜 기반의 싱글 모터 시스템으로 최고 출력 272마력의 성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3초 만에 도달한다. 1회 충전 시 복합 기준 351km를 주행할 수 있어 매일의 출퇴근은 물론 주말의 이동까지 여유롭게 대응한다. 여러 기능을 중앙 디스플레이에 직관적으로 통합하고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것도 도심형 전기차다운 선택이다.

WEEKEND OUTDOOR | Volvo EX30 Cross Country

평일의 도시에서 주말의 자연까지

금요일까지는 도심을 달리고, 주말이면 캠핑 장비를 싣고 도시 밖으로 향한다. EX30 Cross Country는 이런 두 가지 일상을 한 대의 자동차로 연결한다. 볼보가 오랫동안 이어온 Cross Country의 헤리티지를 순수 전기차에 처음 적용한 모델로, EX30의 컴팩트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높아진 지상고와 견고한 디자인, 사륜구동 시스템을 더해 활동 반경을 넓혔다. 두 개의 모터를 결합한 트윈 모터 퍼포먼스 사륜구동 시스템은 최고 출력 428마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7초 만에 도달한다. 1회 충전 시 환경부 복합 기준 주행거리는 329km. 높아진 지상고와 Cross Country 전용 컴포트 새시는 도심을 벗어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움직임을 돕는다.

FAMILY JOURNEY | Volvo EX90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한 플래그십 SUV

EX90은 볼보의 차세대 순수 전기 플래그십 SUV다. 볼보의 차세대 '안전 공간 기술(Safe Space Technology)'을 통해 차량 안팎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운전자를 지원하며, 자체 개발한 '휴긴 코어(HuginCore)'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기반으로 차량의 기능과 안전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내에서는 자연광에 가까운 SunLike LED, 25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Bowers & Wilkins 하이 피델리티 사운드 시스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일렉트로크로믹 글라스 루프 등을 적용해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완성했다. 국내에는 사륜구동 기반의 트윈 모터와 트윈 모터 퍼포먼스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각각 최고 출력 456마력과 680마력의 여유로운 성능을 발휘한다. 급속 충전 시 10%에서 80%까지 약 22분, 1회 충전 시 글로벌 WLTP 기준 최대 625km를 주행할 수 있어 장거리 이동에도 높은 활용성을 갖췄다.

URBAN ELEGANCE | Volvo ES90

세단과 SUV 사이, 새로운 균형을 찾다

세단의 우아한 실루엣을 좋아하지만 넉넉한 공간과 실용성도 포기하기 어렵다면? 볼보의 순수 전기 플래그십 ES90은 그 사이에서 새로운 답을 제시한다. 세단의 우아함과 패스트백의 실용성, SUV의 여유로운 공간감을 하나의 차에 담은 모델로, 볼보는 이를 '균형의 미학(The Art of Balance)'이라고 표현한다. 약 5m의 전장과 3.1m가 넘는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여유로운 실내를 확보하고, 일반적인 세단보다 높은 지상고로 넓은 시야와 편안한 승하차를 돕는다. 동시에 리어 글라스까지 함께 열리는 5도어 테일게이트 구조를 적용해 세단의 유려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짐을 싣고 내리기 편리한 패스트백의 실용성을 더했다. 장거리 이동에서도 여유를 갖췄다. 급속 충전 시 10%에서 80%까지 약 22분, 1회 충전으로 글로벌 WLTP 기준 최대 706km를 주행할 수 있다.

Recommend For

도심 주행이 많은 사람 / 부담 없는 크기의 프리미엄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 / 첫 전기차를 찾는 사람

“도심 주행이 많거나 부담 없는 크기의 프리미엄 전기차를 원하는 고객, 처음 전기차를 선택하는 고객에게 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아주오토리움 일산지점 | 이종우 팀장



Recommend For

평일에는 도심, 주말에는 캠핑과 여행을 즐기는 사람 / 컴팩트한 차체와 강력한 퍼포먼스를 함께 원하는 사람

“평일에는 도심에서 이용하면서 주말에는 캠핑이나 여행 등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고 싶은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아주오토리움 일산지점 | 김성준 매니저



Recommend For

안전과 넉넉한 공간을 우선하는 가족 / 장거리 여행이 잦고 프리미엄 SUV의 편안함과 성능을 원하는 사람

“넉넉한 공간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고객, 장거리 여행이 잦은 고객에게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아주오토리움 일산지점 | 김형천 매니저



Recommend For

세단의 우아함과 SUV의 공간을 모두 원하는 사람 / SUV의 높은 차체가 부담스러운 사람 /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세단 특유의 우아한 디자인은 선호하지만 공간과 활용성 때문에 SUV를 고민했던 고객에게 ES90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오토리움 일산지점 | 최진원 매니저





아주 창립 66주년, 개척자정신으로 여는 AI 시대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산업 구조뿐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올해로 창립 66주년을
맞아 아주는 이러한 경영 환경과 시장,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원의 공감과
역량을 이끌어내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실제
현업에 있는 구성원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결국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힘은 새로운 기술 그
자체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끊임없이 탐구하며 활용하는
구성원들에게서 나온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아주는 창립 66주년을 맞아 지난 8월 31일부터 1박 2일간 AI 해커톤
대회 'Be the Pioneer'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AI 시대를 맞아
아주의 개척자정신을 새롭게 실현해보는 시도였다.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인 '해커톤(Hackathon)'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대회이다. AI를 활용해 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번 대회에 아주의 전 계열사에서 총
16개 팀,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주제는 세 가지였다.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워크(Smart Work)', 미래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넥스트 커스터머(Next Customer)' 그리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이프 앤 필드 오퍼레이션(Safe & Field
Operation)'.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업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한편, 발표 준비에도 AI를
적극 활용했다. 평소 쓰던 각자의 프롬프트를 합치거나 서로가 쓰는
AI 툴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현장에는 AI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해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였다.

대회 이튿날 진행된 피칭에서는 각 팀이 직접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무대 위에서 시연했다. 행사장에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아주의 문규영 회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이 자리했으며, 심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까지 참석해 단순한 공모전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혁신
아이디어 도출과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간이었다.

현장에서 찾은 AI 해법

이번 해커톤에서 주목받은 것은 거창한 미래 기술보다 각자의
업무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였다. 여행 경험부터 자동차 서비스, 레미콘
출하까지 AI를 활용해 실제 현업의 문제를 해결한 세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 | 2

- 1 아주 창립 66주년을 맞아 열린 AI 해커톤
'Be the Pioneer'를 마친 참가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2 아주 창립 66주년 기념 행사에서
구성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문규영 회장

대상 | Innovator of the Year
도시를 큐레이션하는 AI 컨시어지

RYSE 'Culture Team'의 AI Local Concierge

서울에 체크인한 외국인 투숙객이 마주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넘쳐나는 여행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장소를 선택하는 일이다. 라이즈 Culture Team은 정형화된 트래블 가이드 대신 라이즈만의 감각으로 엄선한 216개 장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게스트의 현재 상황과 취향, 시간을 반영해 간단한 선택만으로 최적의 동선을 제안하는 'AI Local Concierge'를 선보였다.

호텔 안에서의 투숙 경험을 넘어 도시 전체를 라이즈의 브랜드 경험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호텔 밖 고객의 동선과 취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축적해 새로운 공간 비즈니스로 발전시킬 가능성까지 제시해 주목받았다. 또한 해커톤 현장에서 코드를 통해 참석자들이 직접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연하며 아이디어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
결과물까지 직접 만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 장소와 행사를
기획해 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Culture Team’
RYSE Culture Team 강규원 매니저

최우수상 | Innovation Leader Award
3초 만에 판단하는 차량 사전 진단

아주네트웍스 '기어파이프'의
AI 기반 차량 입고 사전 진단 서비스

차종별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과 복잡한 차량 사양 때문에 단순 기능 미숙지를 고장으로 오인해 차량을 입고시키는 '헛입고'. 이는 고객의 불편은 물론 영업사원과 정비 엔지니어에게도 불필요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졌다.

아주네트웍스의 기어파이프 팀은 고객이 설명하는 증상이나 계기판의 경고등 색상 등을 AI가 분석해 단순 기능 문제인지 실제 정비가 필요한 위험 상황인지를 3초 만에 판단하는 '정상입니다' 프로젝트를 구현했다. 같은 증상이라도 차종에 따라 다른 안내를 제공하도록 정확도를 높였는데, 특히 AI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판단을 지원해 더욱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돕는 AI'의 실용적인 모델이란 평가를 받았다.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기쁘고요! 이번 경험을 계기로
동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기어파이프’
아주네트웍스 서비스본부 부품팀 김형남 팀장

1 | 2 | 3 | 4

열띤 협업과 발표가 이어진 'AJU AI Hackathon - Be the Pioneer'의 현장.
대상 수상팀(왼쪽에서 두 번째)과 최우수상 수상팀(오른쪽)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다.





창립 66주년 기념 행사 'AJU AI HACKATHON' 현장.
임직원들은 창립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AI를 주제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의 가능성을 공유했다.



우수상 | Innovation Explorer Award 숙련자의 경험을 데이터로 바꾸다

아주산업 '4416'의 AI 레미콘 출하 시스템 개발

레미콘 공장의 출하실은 현장 상황부터 차량과 도로 여건까지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곳이다. 그동안 숙련된 담당자 한 명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해 온 만큼 업무 부담도 컸다.

아주산업의 4416 팀은 과거 출하 데이터와 다음 날의 예정표를 AI에 학습시켜 필요한 현장과 시점에 적절한 물량을 배분하고 최적의 출하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숙련자의 노하우에 데이터 기반의 판단을 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레미콘 업계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적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번 경험은 제 삶에서 무언가에
가장 열심히 집중했던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 20년, 30년 뒤에도
오늘이 계속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416’
아주산업 경영지원팀 천성진 매니저

우수상을 수상한 아주산업 '4416'팀이
숙련자의 경험과 데이터를 결합한 AI 레미콘
출하 시스템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이번 AI 해커톤은 최신 기술을 경험하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참가자들 스스로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AI를 활용해 솔루션을 만들어보는 행사였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결합해본 일련의 과정들은 아주의 '개척자 정신'이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실행으로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해커톤 수상 팀에게는 창립 66주년을 기념해 최고의 리워드도 함께 제공된다. 대상 팀에게는 미국 CES 2027 참관, 최우수상 팀은 일본 스마트 테크 투어, 우수상 팀은 중국 테크 투어의 기회가 주어진다. 최첨단 기술과 산업 변화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이번 해커톤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이번 행사의 의미는 수상이나 포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AI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를 참가자들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 66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온 아주! 시대와 기술은 달라졌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먼저 모색하고 직접 실행해보는 '개척자정신'만큼은 지속될 것이다. AI 시대를 맞은 지금, AI 기술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환경과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아주의 '개척자정신'은 미래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



업계 최초 2년 연속 ‘최우수 리테일러사’ 정상의 기준을 다시 쓰다

아주네트웍스가 4월 19일 충북 증평 벨포레리조트에서 열린 ‘2025/26 올해의 리테일러(RETAILER OF THE YEAR, 이하 ROTY)’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 리테일러사(Retailer of the Year)’로 선정되며 업계 최초 2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ROTY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전국 공식 리테일러사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경영 성과와 고객 만족도, 판매 및 사후 서비스 운영 역량, 브랜드 기준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상이다. 올해는 총 9개 공식 리테일러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순한 판매 실적을 넘어 고객 경험 전반과 운영 효율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까지 폭넓게 평가했다.

아주네트웍스가 2025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최우수 리테일러사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단발성 성과를 넘어 전 영역에 걸친 균형 잡힌 경쟁력과 운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국내 리테일러 네트워크 역사상 최초의 2년 연속 수상으로, 아주네트웍스가 업계를 선도하는 리테일러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전 구성원이 함께 완성한 독보적인 경쟁력

최광석 대표를 비롯해 각 본부장과 지점장, 수상 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 리테일러사’ 선정 외에도 A/B그룹 최우수 서비스센터(Service of the Year, Group A/B), 최우수 고객 서비스 관리자(Service Advisor of the Year), 최우수 정비 기술 전문가(Technician of the Year), 최우수 정비 운영 관리자(Workshop Controller of the Year) 등 서비스센터와 개인 부문에서도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사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비스센터를 비롯해 고객 접점, 정비 기술, 운영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르게 수상했다는 점은 아주네트웍스의 경쟁력이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전반에 걸쳐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수상은 고객에게는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 파트너로 다가가고, 임직원에게는 자긍심과 동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쓰다! STILE Downtown Los Angeles 새로운 모습으로!

아주컨티뉴엄이 운영하는 ‘STILE Downtown Los Angeles’(이하 STILE)가 약 5개월간의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지난 6월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2019년 인수한 ACE Downtown Los Angeles를 기반으로 2024년 자체 브랜드 ‘STILE’로 리브랜딩한 데 이어,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또 한 번의 변화와 혁신을 구현했다. 핵심은 STILE을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아주컨티뉴엄이 지향하는 ‘콘텐츠 기반 라이프스타일 호텔’로 확장하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LA의 지역적 특성과 결합한 데 있다. LA 다운타운 중심부의 역사적 건축물인 극장과 지역의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머무르고(Stay), 일하고(Work), 교류하고(Connect), 문화를 경험하는 복합적인 호스피탈리티 공간을 완성했다.

호텔을 넘어, LA의 크리에이티브 허브로

LA 다운타운 중심부(929 S Broadway, Los Angeles, CA 90015)에 위치한 STILE은 13층, 총 182객실 규모로 ‘Stay By Your Own Rules(자신만의 방식으로 머무는 라이프스타일)’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다운타운 LA의 공연·예술·크리에이티브 환경과 맞닿아 있어 크리에이티브 전문직부터 디지털 노마드, 밀레니얼·Z세대 여행자, 글로벌 비즈니스 출장객 등 주체적이고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층이 주요 타깃이다. STILE이라는 이름에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제안하는 동시에,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문을 열어 방문객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 STILE은 LA시 지정 역사문화기념 건축물인 대규모 공연 극장을 품고 있는 만큼,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고유한 공간적 매력을 한층 강화했다. 1920년대 스페니스 고딕 양식의 원형과 헤리티지는 보존하면서, 두 여성 디자이너 캐서린 존슨Catherine Johnson과 레베카 루돌프Rebecca Rudolph가 이끄는 ‘Design, Bitches’가 주도한 인더스트리얼 모던 인테리어를 결합해 시간의 층위와 현대적인 감성이 공존하는 공간을 완성했다. 이번 리노베이션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STILE이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워크스페이스에서 소셜 허브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복합 호스피탈리티 공간으로 재정의됐다는 점이다.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이자 크리에이티브 허브인 ‘SparkHouse’를 중심으로 루프탑 풀&바 ‘Somewhere Special’, 라이프스타일 숍 ‘The Goodie Shop’, 피트니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머무름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호텔 바로 옆 ‘The United Theater on Broadway’를 비롯해 F&B 파트너 DLS Events, 디자인 스튜디오 Design Bitches·Studio Juice, 객실 편의용품을 담당하는 Room Service Los Angeles 등 LA 기반 브랜드 및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호텔 전체가 하나의 콘텐츠 플랫폼처럼 작동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단순한 숙박을 넘어 ‘다운타운 LA를 살아가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파트너 Kasa와 협업한 셀프 체크인과 24시간 디지털 컨시어지 등 ‘Contactless, Not Faceless’라는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호텔 운영 모델을 구현했다.



에스와이삼양과 특수콘크리트 기술협력 MOU 체결

아주산업이 7월 7일 아주산업 본사에서 에스와이삼양과 특수콘크리트 기술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특수콘크리트 기술 자문, 레미콘 및 배합설계 기술 지원, 생산공정 및 설비 운영 개선,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기술연구소 운영 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협약식에는 문승만 아주산업 대표와 유재현 에스와이삼양 사장을 비롯해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수콘크리트 분야의 기술 협력 방향과 중장기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건설시장 환경 변화와 특수콘크리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각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결집해 공동 연구개발과 사업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기술 자산과 현장 적용 노하우를 축적해온 아주산업과 특수콘크리트 분야의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에스와이삼양이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산업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특수콘크리트 기술력과 품질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기술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OEM 연계 사업화 모델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북·동부 및 충청권 등 미진출 지역으로 사업 기반을 넓히는 한편, 기술 중심의 신규 수익 모델 발굴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인천으로 이어진 프리미엄의 두번째 여정! 아주모터스 ‘캐딜락&GMC 인천 전시장’ 오픈

아주모터스가 5월 28일 GM 아시아퍼시픽 본사가 위치한 인천에 ‘캐딜락 & GMC 인천 전시장’을 공식 오픈했다. 수원에 이은 아주모터스의 두 번째 캐딜락 전시장으로, 경기·인천 지역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새로운 거점이다.

오픈 행사에는 헥터 비자레알 사장을 비롯한 한국지엠 주요 임원진과 최광석 아주 자동차사업부 총괄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광석 총괄대표는 “인천은 한국지엠 본사가 위치한 상징적인 지역인 만큼, 이번 전시장 오픈은 단순한 영업 거점 확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아주 자동차 부문이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천 전시장을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최고의 서비스가 구현되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헥터 비자레알 사장 역시 “아주모터스가 수원 전시장에서 보여준 성과처럼 인천 전시장 또한 고객들이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 전시장 1호 고객을 위한 ‘허머 EV 1호차’ 전달식도 진행하며 본격적인 영업의 시작을 알렸다. 인천 전시장은 수입차 전시장에 밀집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왕복 12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높은 시인성과 접근성을 갖췄다. 약 106평 규모의 실내 공간에는 차량 7대를 동시에 전시할 수 있으며, 최신 캐딜락·GMC의 브랜드 디자인을 적용한 인테리어와 전면 28m 통유리 구조로 개방감을 높였다. 특히 브랜드 최초로 ‘허머 EV 전용 전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차별화된 전동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아주모터스는 향후 인천 전시장을 브랜드 확장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캐딜락 딜러십과 기존 쉐보레 정비 사업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수도권 전역의 프리미엄 고객을 아우르는 판매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존중의 힘으로 만든 아주 행복한 일터 아주, ‘2026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아주가 5월 28일 열린 ‘2026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성평등 조직문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아주그룹이 남녀고용평등 분야에서 처음 받은 정부 포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 조성 and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에 수여하는 제도로, 여성 고용 확대와 육아휴직 사용률, 모성보호 제도 운영,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아주는 그동안 운영해온 다양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와 이를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조직문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5년 9월 ‘워라블(Work-Life Blending)’을 핵심 키워드로 출산·육아 관련 복리후생 제도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첫 달 급여 차액을 회사가 보전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배우자 유·사산 휴가, 태아 검진 시간 지원, 임신 축하 패키지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여성 채용 비율도 약 44%를 기록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기 구성원을 위한 유연근무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개인별 안내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연결을 넘어 하나로, AJU Culture Connect 정규 과정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선을 보인 ‘AJU Culture Connect’가 올해 정식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아주의 역사와 철학, 사업과 사람, 사회적 가치를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더욱 체계적인 구성과 다채로운 콘텐츠를 갖춰 24명의 신규입사자와 함께 첫 여정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개척자정신’, ‘변화와 혁신’, ‘행복의 선순환’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입사자들은 먼저 아주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청남빌딩에서 경영진과 만나 아주의 탄생 배경과 경영 철학,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아주산업 인천사업소를 방문해 아주의 시작과 성장 과정을 현장에서 살펴봤다. 이어 흥대 RYSE에서는 브랜드 철학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이 공간과 서비스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체험하며 변화와 혁신의 현재를 만났다. 마지막으로 창업주의 생가 터에 조성된 ‘아주좋은꿈터’를 찾아 아주의 사회공헌 철학과 아주복지재단의 활동을 알아보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나기 키트를 직접 전달하며 ‘행복의 선순환’의 의미를 되새겼다.

‘AJU Culture Connect’는 앞으로도 신규입사자들이 아주의 다양한 사업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구성원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쌓아가는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예정이다.

SPECIAL GIFT

〈아주 좋은 날〉 2026년 가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ajupr@aju.co.kr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미래로의 여행 A Trip to the Future》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늘 정원, 수상 도시, 친환경 비행기, 테라포밍, 우주 엘리베이터까지. 지금의 청소년이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미래의 일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을 미래의 생활과 연결해 쉽고 흥미로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풀어내며, 다가올 변화와 그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상상해보게 한다.

3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전 세계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책. 〈토이 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인크레더블〉, 〈카〉, 〈라따뚜이〉, 〈월-E〉, 〈업〉, 〈인사이드 아웃〉, 〈코코〉 등 픽사의 수많은 명작은 스튜디오의 제1원칙인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픽사의 제작자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영화 속 픽셀 하나하나까지도 이야기의 일부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책은 픽사의 독창적인 예술성과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스토리와 엄선된 아트워크,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의 흐름을 바꾼 흥미로운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2



《지브리 스튜디오에선 무슨 일이?》
스튜디오 지브리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 하나로 매혹적인 이야기와 생생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수십 년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열성 팬을 자처하는 이들조차 스튜디오 지브리의 숨겨진 이야기는 잘 알지 못한다. 《지브리 스튜디오에선 무슨 일이?》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전 작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흥미로운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짜 지브리'의 세계를 보여준다.

4

《프레그런스, 자연의 향기》
영국 왕립식물원 큐가든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책은 자연에서 얻은 향의 원료 100가지를 식물학적 정보와 함께 소개한다. 각각의 식물이 지닌 향을 자연과 역사, 문화의 맥락에서 풀어내며, 감각적인 식물 이미지를 감상하는 즐거움까지 더한다.



여유와 휴식이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바쁘게 일상을 보냈다면 그만큼 충분한 휴식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잠시 여유가 생긴다면 카페에서 차 한 잔과 함께 느긋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 중 네 분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Reader's Story

〈식감이 먼저 온다: 디저트, 맛보다 감각으로 말하다〉 기사를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라 SNS에서 '두바이 초콜릿'이나 '두바이 쏘독 쿠키'의 열풍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기사를 통해 그 이면에 담긴 문화적·심리적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디저트가 섬세한 풍미와 맛의 조화를 읊미하는 영역이었다면, 오늘날의 디저트는 '식감 혁신'을 통해 오감을 즉각적으로 자극하는 하나의 '경험'으로 진화했다는 분석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일수록 복잡한 서사보다 직관적으로 체감되는 감각적 경험을 선호한다는 분석에 공감했습니다. 솜뭉치 플랫폼에서 바삭하게 부서지는 소리와 끈적하게 늘어나는 비주얼에 대중이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감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려는 현대 소비문화의 한 단면을 날카롭게 짚어낸 기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일상 속 트렌드를 인문학적·사회적 시선으로 풀어내는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릴리 작가의 갤러리 지면을 보며 눈으로 먼저 봄을 맞이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스크랩해 벽에 장식해두니 작은 갤러리에 온 듯합니다. 화사하면서도 정갈한 작품들이 전하는 시각적 풍요로움 덕분에 일상의 해묵은 피로가 맑게 씻겨 내려가는 듯했고, 마치 정원을 거닐 것처럼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통해 일상을 지키는 단단한 취향의 힘을 짚어준 대목도 참 정겹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나만의 소박한 루틴을 소중히 가꾸는 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삶을 향한 성찰'이라는 문장을 읽으며 웬지 모를 용기를 얻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었는데, 지면을 채운 인문학적 온기가 마음을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듯했습니다. 거창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매 순간 내 곁의 소박한 행복을 발견해 나간다면, 우리 앞날도 제멋처럼 '아주 좋은 날'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임재균 님

조윤희 님